5일 Market Index
코스피 5383.80 (-300.00)
코스닥 678.41 (-36.54)
금리(국고채 3년) 3.669 (-0.045)
환율(원-달러) 1342.1 (+0.6)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하나금융그룹

美 선거 후폭풍… 환율·투자 셈법 복잡

韓 경제 덮친 블루 쓰나미

美 국채 금리 빠르게 하락
중동사태 종전 기대 유가↓
원·달러 환율 변동성 지속
중장기적으로 안정화 전망



증시·삼전닉스 동반 하락 '블루쓰나미'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자 시장에서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5일 국내 증시의 두 기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 /뉴시스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블루 쓰나미'를 일으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정치지형이 바뀌면서 수출 중심의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법안의 변동도 예상되고 있어서다.

◆ 민주당 상·하원 석권…유가·금리↓

5일 외신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개표 결과 미 민주당은 미 공화당이 장악했던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모두 확보했다. 〈관련기사 3면〉

미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확보하는 '블루 쓰나미'가 현실화하자, 미 국채 금리는 빠르게 하락(채권값 상승)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규모 감세안과 연방정부의 대규모재정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서다. 지난달 5일 약 5.31%까지 올랐던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중간선거 결과를 반영해 지난 4일(현지시간) 약 4.9% 수준까지 내렸다.

중동사태의 종전이 앞당겨질 것이란 기대감도 확산하면서 국제 유가를 끌어내렸다.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일보다 7.97달러(8.29%) 내린 배럴당 88.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환율 변동성 지속

달러는 약세 전환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을 지속하고 있다. 5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보다 0.6원 오른 달러당 1342.1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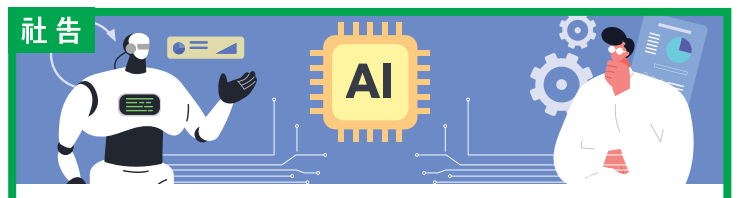
달러값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지속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간선거 결과) 달러 약세 요인이 많아지면서 원화는 강세 압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라면서도 "선거 결과 AI 데이터센터 증설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는 메모리 수요 증가세 둔화 전망으로 연결됐고, 국내 반도체 주식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원화 약세의 요인이 되는) 외국인의 순매도 흐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언론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이란 주제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전환(AX)'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AI을 도입해 업무에 활용하는 AX는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앞선 기업만 쓰던 기술이 이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AI는 업종마다 쓰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쓰는 방식과 금융업이 쓰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내 산업에 맞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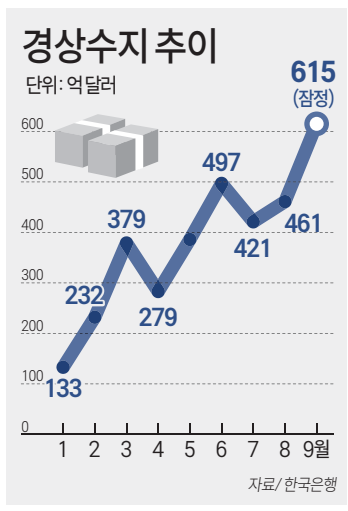
이번 포럼에서는 AX 시대의 변화를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산업, 우리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최신 트렌드와 산업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 제 :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 일 시 : 2026년 11월 18일(수) 14:00~16:5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프로그램 :
14:20~14:50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14:50~15:20 뤼튼테크놀로지스 김지섭 이사
15:20~15:50 LG유플러스 한영섭 AI R&D랩장
15:50~16:20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박기철 상무
16:20~16:50 SK텔레콤 현창호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문 의 : 포럼 사무국 (02)721-9818(forum@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3개월 치 경상흑자, 작년 1년분 넘어섰다

한은, 9월 국제수지
월간 경상흑자 614.6억 달러
반도체 수출 31%, 가격 182%↑



올 3분기에 우리나라가 석 달 동안 낸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한 해 흑자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 물량이 늘고 가격이 큰 폭으로 뛴 데다 분기 말 납품까지 집중되면서 9월 흑자는 사상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은 10월에도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5일 한은이 발표한 '2026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 흑자는 614억6000만달러로, 지난 6월의 종전 최고치(497억3000만달러)를 넘어섰다. 3분기 흑자는 1496억5000만달러였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전체 흑자(1230억5000만달러)보다 266억달러 많다.

신기록을 이끈 것은 상품수지였다. 9월 상품수지 흑자는 627억5000만달러로 8월보다 159억4000만달러 늘었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 수출이 1년 전보다 92.4% 늘어난 1307억2000만달러에 이르렀다. 용선료 지급이 늘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적자가 커지면서 서비스수지 적자도 8월 16억8000만달러에서 9월 33억5000만달러로 확대됐지만, 상품수지 개선 폭이 이를 웃돌았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9월 반도체 수출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30.5% 늘고 가격은 182.1% 올랐다며 가격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경상흑자 전망치를 5월 2500억달러에서 8월 4500억달러로 높였다. 1~9월 누적 흑자는 3406억6000만달러로 5월에 내놓은 연간 전망치를 이미 900억달러 넘게 웃돌았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수출 호조를 근거로 올해 경상흑자가 8월 전망치인 4500억달러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8일 한은은 4500억달러에 도달하려면 9월부터 연말까지 월평균 약 426억달러의 흑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9월 실적을 반영하면 남은 석 달에 필요한 흑자는 월평균 약 365억달러다. 3분기 월평균 실적(약 499억달러)보다 27% 적은 규모다.

김 국장은 10월 경상흑자가 9월보다 줄더라도 월간 기준 역대 2위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11월에는 증권투자 관련 분기 배당 지급이 집중된다. 앞서 8월 11억8000만달러였던 배당소득수지 흑자는 분기 배당 지급의 영향이 잦아든 9월 22억4000만달러로 늘었다. /김주형 기자 gh471@

"규제 풀고 AI융합 'K-바이오' 혁신"

정부·바이오 산·학·연 한자리
과감한 R&D투자확대 등 제시

대한민국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의 뒤를 잇는 '넥스트 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과 지원 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한민국 넥스트 엔진: 바이오 대혁신, 국가미래성장을 잇다'를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 관계자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비롯해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해 K바이오 3대 성장 축으로 ▲과감한 R&D 투자 확대 ▲AI·데이터 융합 ▲규제·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신약 개발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허가받은 신약 중 개발 비용을 건지는 비율은 20%에 불과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기업의 끊임없는 도전과 함께 혁신 성과의 가치를 인정하는 합리적 제도와 정책적 지원이라는 민관협력이 어우러져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눈먼 돈 주면 안 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묵현상 뉴패스바이오 대표는 현행 바이오 R&D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짚으며 '투자와 회수'를 촉구했다.

묵 대표는 "현재 K바이오는 정작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임상 2상, 3상 단계에 진입할 자금은 부족해 초기 단계에서 해외에 기술을 저가 매각(라이센스 아웃)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6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글로벌 7개사 20억달러 투자…지역 청년들에게 기회 열어주길" /사진 뉴시스

▲사법부도 한숨 쉬는 '조작기소 특검법'…"자칫 수사·기소 무효"

▲여야, 미래대응기금 공방…與 "채무 감소 기여" 野 "빚 늘려 쌓을 것"

▲정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 연속 참여

▲"20~49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야"…2028년 시행 추진

▲'쉬었음' 청년 줄었지만…최악 취업난에 실업·자영업 내몰려

김동철, '전기요금 현실화' 촉구

〈한국전력 사장〉

"대규모 전력망 재원 확보 필요"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공급 속도
한전 자체적 노력만으론 한계 판단
"산업용 인상은 최후의 수단 돼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전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의 자구노력과 재무구조 개선만으로는 대규모 전력망 투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사장은 지난 4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자단 현장간담회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보는 사채 발행이나 외부 차입을 통해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한전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누적 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 재원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김 사장은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데 사채 발행이나 외부 차입을 통해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전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2021~2023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왔다.

김 사장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15조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이행했으며, 올해도 당초 목표인 2조2000억원을 넘어 약 2조5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협의한 재무구조 개선 목표도 초과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누적 적자 해소와 향후 전력망 투자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한전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망 확충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연료비 연동제는 됐음에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사장은 "산업용에 있어서의 누적 적자분은 거의 지금 해소가 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그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산업용 전기요금(인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현실화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부와 논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한전은 국가 전략산업의 전력 공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과 관련해 김 사장은 "내년 초 착공, 2028년 말까지 전력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기후부와 광주광역시, 장성군, 광산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전력망 경과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중 송전선로 건설에 신공법을 도입해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변압기 조달은 변수로 꼽힌다. 김 사장은 세계적인 변압기 수요 증가로 조달에 약 3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국가 전략산업의 전력 공급 시기를 맞추기 위해 전국 전력망 건설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류(DC) 배전망 구축과 AI 기반 가상 전력망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김 사장은 "직류 기반의 전력망을 계속해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표준을 구축해가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구본규, LS전선 부회장 승진

LS그룹 2027년도 임원 인사

CEO 대부분 유지… 조직안정 무게
구본권 부사장, LS엠트론 COO 발탁



LS그룹이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 사장(사진)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2027년도 임원 인사를 5일 단행했다. 전력 인프라 호황 속에 LS전선이 거둔 최대 실적을 반영한 인사로 풀이된다. 재계에서는 오너가 3세 경영인의 그룹 내 역할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는 대부분 자리를 지켰고 신규 이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선임됐다.

LS그룹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2027년도 정기 임원 인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는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올해 인사는 조직 안정에 무게가 실렸다.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조직 변화를 최소화하고 전력 사업 호황에 따른 실적 경신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구 부회장의 승진이다. 그룹의 실적 경신을 이끈 LS전선의 성과가 인정을 받은 것이다. 구 부회장은 2022년 LS전선 대표이사에 오른 뒤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LS마린솔루션 등 주요 자회사의 성장을 주도했고 사업구조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역대 최대 실적과 수주 성과를 거뒀다.

LS전선에서는 김형원 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했다. 김 사장은 에너지 사업을 이끌며 글로벌 수주 확대와 해저케이블 사업 성장을 견인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앞으로 에너지경영총괄과 안전경영총괄을 함께 맡는다.

LS는 신규 이사 선임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명으로 늘리며 세대교체에도 나섰다. 배터리소재, 영구자석, 발전 등 그룹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이끄는 책임자들도 승진 명단에 포함됐다. 재계에서는 실적 호조 속에서 미래 사업을 이끌 인재를 전면에 배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부 인재 영입도 이뤄졌다. 재정경제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거친 최원진 씨가 ㈜LS 경영전략본부장으로 합류한다. 최 본부장은 자본시장 경험과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 정책과 동향에 선제 대응하고 그룹의 미래 사업 점검과 재무 전략 강화를 맡을 예정이다.

또 다른 오너가 3세인 구본권 부사장은 LS MnM에서 LS엠트론으로 자리를 옮겨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는다. 그룹은 구 부사장이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등 LS엠트론의 경영 안정성 강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1면 '美 선거 후폭풍…'서 계속

산업별 전망 엇갈려
자동차 ↑ 반도체 ↓

◆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속·빅테크 투자 제동 관측

산업별 전망은 엇갈린다. 의회를 장악한 미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 및 삭감을 추진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빅테크의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투자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1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해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에 큰 압박을 가해왔다.

신재생에너지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전망은 밝은 반면,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업권은 민주당의 빅테크 규제 기조라는 변수를 맞딱뜨렸다.

앞서 미 민주당은 AI의 급격한 도입에 제동을 걸거나 데이터센터 건설을 규제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HBM) 수요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상승에 기여한 만큼, AI 영역에 강도 높은 규제가 도입되면 실적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AI 반도체용 패키지기판 공급난 장기화
삼성전기 '증설'·LG이노텍 '고부가' 대응

국내 부품업계 글로벌 시장공략 속도

인공지능(AI) 반도체용 패키지기판 수요가 늘면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기는 기존 고객사 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증설을 추진하고 LG이노텍은 AI 가속기와 서버용 고부가 기판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등 각기 다른 전략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AI 반도체용 패키지기판 공급난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부품업계도 생산능력 확대와 고부가 제품 양산에 나서고 있다. 미국 인텔은 첨단 패키징용 기판 부족으로 데이터센터용 중앙처리장치(CPU) 공급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3분기 보고서에서 기판과 메모리 등 주요 부품의 공급난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기판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국내 부품업계에도 공급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이미 공급 중인 AI 서버와 네트워크용 FC-BGA의 생산능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 세종사업장과 베트남법인에 총 6조7800억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종사업장에 4조2700억원을 투입해 2028년 9월 양산을 시작하고 베트남법인에는 2조5100억원을 투자해 2030년 6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도 확대 중이다. 삼성전기는 지난 10월 21일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패키지기판 공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양사는 세종·부산 사업장에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기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엔비디아는 일본 이비덴과 대만 유니마이크론과 함께 삼성전기를 주요 패키지기판 파트너사로 언급했다.

LG이노텍은 기존 PC CPU용 기판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AI 가속기용 FC-BGA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2027년 양산을 시작하고 2028년까지 AI 서버용 고다층·대면적 기판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9월에는 한 변의 길이가 100㎜를 넘는 AI 가속기용 FC-BGA를 공개했다.

고객사 확보와 추가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지난 6월 주요 고객사 2곳과 장기공급계약(LTA) 및 추가 투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 생산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애플, 폴더블폰 신제품 성과 엇갈려

삼성전자, 'Z폴드8' 판매 증가세
애플, '아이폰 듀오' 신뢰도 하락



갤럭시 Z 폴드8. /삼성전자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가 출시 초기 화면 파손 논란에 휩싸이면서 삼성전자와의 폴더블폰 경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제품에서 내구성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구매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8의 판매 증가세를 이어가며 폴더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5일 IT 전문매체 안드로이드 오소리티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공개된 아이폰 듀오 관련 온라인 투표에서 응답자의 약 40%가 출시 초기 화면 파손 사례로 제품에 대한 구매 신뢰가 떨어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약 30%는 애초에 구매할 생각이 없었다고 답했으며 차세대 제품에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은 약 13%였다. 해당 조사는 매체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온라인 투표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23일 아이폰 듀오 출시 직후 시작됐다.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품을 구매한 지 몇 시간 만에 내부 화면 중앙에 검은 선이나 색상 띠가 나타났다는 사례가 올라왔다. 전자기기 수리 전문업체 아이픽스잇은 힌지 중앙부의 화면 지지 구조가 파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애플은 지난 10월 26일 일부 아이폰 듀오에서 내부 디스플레이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체 지원 방침을 밝혔다. 아이폰 듀오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 기준 329만원부터 시작하며, 미국에서 보증 대상이 아닌 내부 화면 수리 비용은 999달러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2019년 첫 폴더블폰을 선보인 이후 8세대에 걸쳐 힌지 구조와 디스플레이 내구성을 개선해 왔다. 지난 7월 출시한 갤럭시 Z8 시리즈는 국내 사전 판매에서 144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사전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애플의 폴더블폰 시장 진입 이후에도 갤럭시 Z 폴드8의 국내 판매량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듀오 출시 이후 일주일간 갤럭시 Z 폴드8의 국내 판매량은 직전 일주일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양사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 22%로 1위를 차지했다. 애플은 매출 점유율 50%로 1위를 기록했다. 양사 모두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첫 폴더블폰 출시를 계기로 양사의 기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존 폴더블폰 시장에서 축적한 제품 개발 경험을 앞세우고 있으며 애플은 초기 품질 문제에 대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차현정 기자

美 '블루 쓰나미'에 국내 기업 고심… 친환경 기대·관세 부담

민주당, 텍사스·조지아 선거 승리
삼성·현대차 등 주요 생산기지 위치
현지 정치권과 협력 관계 재정비
전기차·배터리 지원 확대 가능성
트럼프 관세 중심 통상 압박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텍사스와 조지아 등 공화당 강세 지역까지 장악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그룹 등 현지 투자 기업들의 대미 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 친환경 산업 지원 확대 등 기회 요인이 있지만 관세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대응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지아와 텍사스의 주지사 및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현지 정치 지형을 바꿨다. 이에 따라 현지 진출 기업들은 정·관계 네트워크를 재점검하고 대관 전략을 조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민주당과 관계가 깊은 인사 영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지역은 국내 기업의 핵심 생산 거점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세아제강과 휴스틸도 텍사스에 강관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SK하이닉스은 인디애나주 첨단 패키징 시설 등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지아에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를 비롯해 현대트랜시스와 HL만도 등 부품사가 진출해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차와 배터리 합작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SK온도 커머스에 단독 배터리 공장을 두고 있다.

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 기회 요인으로 꼽힌다. 친환경 산업과 전기차 보급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만큼 전동화 전략을 추진하는 현대차그룹과 배터리 기업들의 사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다. 재선에 성공한 존 오소프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도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으로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에 우호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방정부의 통상정책은 별개 변수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 범위가 기존 철강·알루미늄·구리와 자동차·부품에서 의약품과 드론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의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결과 역시 향후 국내 수출기업의 통상 환경을 좌우할 변수로 지목했다. 반도체 업계 역시 AI 투자와 보조금 정책의 향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행정부의 관세 중심 통상정책이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KOTRA 관계자는 "관세 부과가 의회 입법보다 대통령의 행정 권한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더라도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더라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 통상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계 관계자는 "의회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전면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추가 정책 변화와 현지 규제 가능성을 예의주시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美 데이터센터 규제 부담에 반도체주 급락… 코스피 5300선까지 밀려

삼성전자 7.6%·SK하이닉스 9.5%↓
코스피 5%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AI 투자 지연·비용 부담 확대 우려
증권가 "메모리주 반등에 시간 걸릴 듯"


미국 맨해튼 뉴욕증권거래소 전경. /AP·뉴시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하며 '블루웨이브'(민주당의 상징색에서 유래한 파란 물결)가 증시를 덮쳤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7%, 9% 하락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일시 중단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일본 닛케이지수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흔들렸다.

증권가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AI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과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AI 산업 내 기업별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5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28% 떨어진 5383.8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7.57% 하락해 20만1500원까지 내렸으며, 장 중에는 19만9800원까지 떨어지면서 20만원 선이 깨지기도 했다. SK하이닉스도 9.46% 떨어진 126만4000원에 마감했다.

일본 니케이225지수(-1.79%), 대만 가권지수(-3.20%)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증시의 약세는 전날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줄줄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현지 시각) 미 S&P 500은 1.58%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는 3.03% 급등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44%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종목별로 보면 희비는 엇갈렸다. 대표적으로 애플은 5.31%, 마이크로소프트 6.68%, 아마존 6.68% 급등하는 등 주요 빅테크들이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은 각각 3.17%, 7.00% 떨어졌고, 샌디스크 7.91%, 인텔 3.77% 하락하는 등 주요 반도체주는 줄줄이 뒷걸음질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나온 여파라는 해석이다.

안소은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센터가 집중돼 있는 텍사스, 조지아, 오하이오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억제를 공약했던 민주당 주지사들이 당선됐지만, 데이터센터 건설이 전면 중단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마주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정치적 압박을 명분 삼아 AI 지출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짚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전국적인 규제는 대통령 거부권과 민주당 내부의 이해관계, 미국의 AI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현실화에 제약이 존재한다"며 "전력망 확충 비용의 기업 부담 확대, 일부 지역의 인허가 제한 등이 대안 규제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규 프로젝트의 투자비용 확대나 속도조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블루웨이브'가 메모리나 전력기기 AI 인프라 공급 업체들 주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글로벌 자금이 한국 메모리를 팔고 미국 빅테크를 사는 '롱숏' 전략을 취할 수 있어 수급 불확실성은 잔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혜성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결국 국내 증시의 핵심인 메모리주의 유의미한 반등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AI 생태계에 대한 불안과 하이퍼스케일러 자본조달 이슈의 해소를 위해서는 엔비디아 실적과 그 이후의 추가 계약 및 실적발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

노사 교섭 현장 혼란 여전… 법 만든 국회가 안착까지 책임져야

노란봉투법 7개월

❸ 입법 이후의 과제

민주당, 하청 교섭권 보장·점검 강조
국민의힘, 책임 명확화·보완입법 요구
원·하청 교섭 범위 놓고 해법 엇갈려
전문가, 현장 의견 반영·제도 개선 촉구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사 교섭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 이 법을 만든 국회가 현장 안착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 시행 이후의 혼선을 점검하고, 향후 노동 관련 입법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5일 〈메트로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상황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시행 실태 점검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교섭 책임을 명확히 하는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노동위원회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강조하며 "혼란이 아니라 안착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국회가 시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1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기술(IT) 산업 통합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개정노동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교섭은 특혜가 아니다"며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인건비와 성과보상, 사업 재편·고용 등 공통 의제는 기본교섭에서, 개별 법인의 사정은 보충교섭에서 다루는 방식이 노사 모두에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교섭 요구가 쟁의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법의 불명확성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경과를 확인하고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문제가 발견되는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시 한번 다뤄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경영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시행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 방향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하청의 교섭 책임을 의제별로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사업장의 안전은 원청이 책임져야 하고, 임금이나 노동시간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시행령이라도 새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재현 미래생각일자리센터장(공인노무사)은 보완 방안을 마련할 때도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장비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인사·노무 문제는 칼로 무 자르듯이 분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판례를 참고해 사용자성 판단 요소를 구체화하더라도 개별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을 모두 포괄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용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공인노무사는 노사가 기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는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지금 법이나 지침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노사가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는 상황에서는 노무사·변호사 등 제3자가 쟁점을 설명하고 대화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 이후의 점검뿐 아니라 법을 만드는 과정부터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동 의원은 노동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기보다 명분을 앞세운 입법이 이뤄졌다며 노란봉투법을 "장식적인 형식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변재현 노무사도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 현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접근을 경계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역시 입법 이후에도 현장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노동 관련 법률을 추진할 때는 현장 적용 가능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석 노무사는 노동환경 변화에 맞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시간에 열리는 토론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기 쉬운 만큼, 입법자가 직접 일터를 찾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전력수급 공백 메우는 가교… AI시대 '에너지 플랫폼' 진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전력수요를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천연가스(LNG)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이다.이에 한국가스공사는 LNG 수입·공급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전력과 가스, 무탄소 에너지를 연결하는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로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LNG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버려지던 냉열과 기존 가스배관망을 활용해 수소·e-메탄 등 차세대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AI 시대 산업 경쟁력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에 달린 만큼, 가스공사의 역할도 단순한 연료 공급자를 넘어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⑬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 AI·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가스, 전력망 유연성의 핵심

우선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유연성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다.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고, 원자력 발전은 출력 조절에 제약이 있는 만큼 전력수급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LNG는 이러한 전력시스템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인 브릿지 에너지로 주목받는다. LNG 발전은 전력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력 변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LNG 도입과 공급을 통해 발전용 가스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요예측 및 구매 전략 고도화를 추진한다. 장기계약과 현물 구매를 유연하게 조합해 수급 상황에 대응하고,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LNG는 화석연료인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과제도 안고 있다. 가스공사는 LNG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현재의 역할과 저탄소·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미래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며 에너지 시스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다.

◆ 지정학적 위기 속 자원안보…연 106만t 지분물량 직접 통제

LNG 공급망 다변화와 도입물량의 통제권 확보도 국가 에너지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위험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 LNG 도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호주와 캐나다, 미국 등으로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전체 도입물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던 중동산 LNG 비중을 2025년 말 기준 20% 미만으로 낮추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카타르산 물량도 약 14% 수준으로 축소했다.

미국산 LNG 장기계약 확대와 일본 JERA와의 위기 시 물량 교환(Fuel Swap) 협력도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이다. 지난해 연간 330만t 규모의 미국산 LNG 장기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70만t 규모의 계약을 추가했다.

특히 가스공사가 직접 자원개발에 참여해 소유권과 운용권을 확보한 지분물량은 자원안보의 핵심 자산이다.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전량 국내로 도입하거나 제3국에 재판매할 수 있어 위기 대응력이 높다.

가스공사는 호주 프렐류드 사업을 통해 연간 36만t의 지분물량을 확보한 데 이어 LNG 캐나다 1단계 사업의 상업 생산을 시작하면서 연간 70만t을 추가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직접 통제하는 지분물량은 연간 106만t으로 늘었다. 중동 위기 고조 당시 호주와 캐나다산 지분물량 11척을 국내로 긴급 조달한 것은 이러한 공급망 전략의 성과로 꼽힌다.

향후 모잠비크 Coral North FLNG 사업과 Rovuma 사업, 캐나다 2단계 사업 등이 추진되면 지분물량은 2031년 연간 394만t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단순히 LNG를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 단계부터 참여해 공급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자원개발 과정의 탄소배출 저감도 병행한다. LNG 캐나다 사업은 현지 수력발전 전력을 활용해 LNG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t당 0.14tCO_2 수준으로 낮췄다. 향후 2단계 사업에서는 가스터빈을 전기모터로 전환해 배출량을 0.06tCO_2 /tLNG까지 줄일 계획이다.

◆ 버려지던 LNG 냉열 재활용…5000㎞ 가스망, 수소·e-메탄 인프라로

가스공사의 에너지 전환 전략은 LNG 도입과 공급을 넘어 기존 에너지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LNG는 영하 162도의 초저온 상태로 수입된 뒤 국내 생산기지에서 기화돼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은 그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지만, 가스공사는 이를 냉동물류창고와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시설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스공사는 2023년 민간기업 한국초저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24년 국내 최초로 LNG 기화 냉열 활용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에 대한 정부 승인을 확보했다. 냉열 활용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평택생산기지 인근 냉동물류창고에 냉열을 공급하는 사업은 2026년 9월 상쇄등록부 등록을 마쳤다. 향후 15년간 약 2만8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약 8억원의 배출권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에서는 인천항만공사 등과 냉열을 활용한 데이터센터·물류센터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냉각에 LNG 냉열을 활용하면 연간 약 58억4000만원의 가스·전력 비용을 절감하고 7600t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인천·평택·통영·삼척 등 전국 4개 생산기지의 냉열을 전면 활용할 경우 연간 약 2000억원의 전력비용 절감과 최대 250만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40여년간 구축한 전국 5000㎞의 천연가스 주배관망도 미래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된다. 가스공사는 기존 배관망에 수소를 혼입해 공급하는 기술과 차세대 합성가스인 e-메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혼입은 새로운 수소 전용 배관망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비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스공사는 2024년 평택생산기지에 고압 수소혼입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주요 공급설비의 안전성을 검증해왔다. 2026년 8월에는 100% 수소 시험에 착수했으며, 제주 한림정압기지와 한림복합발전소를 연결하는 7㎞ 배관망의 현장 실증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 가스배관망에 수소 20%를 혼입할 경우 연간 770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가스공사는 미국석유협회(API)와 수소 분야 표준 제·개정을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등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에도 나서고 있다.

청정수소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드는 e-메탄은 기존 LNG 운반선과 저장탱크, 배관망, 발전소 및 가정용 보일러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스공사는 글로벌 e-NG Coalition 가입과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등과의 협력을 통해 e-메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가스공사의 경쟁력은 LNG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를 넘어, 기존 에너지 인프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미래 에너지와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은 단일 연료 공급을 넘어 에너지원과 기술, 시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역량에 달려 있다"며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국가 전력망의 유연성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저탄소 LNG·냉열·수소·e-에탄을 아우르는 무탄소 에너지 밸류체인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화석연료' LNG, 탄소 중립·감축 과제
러시아 등 수입의존 높아 韓경제 부담

호주·캐나다·미국 등으로 공급망 확대
중동산 LNG 비중 20% 미만으로 낮춰

인천·평택·통영·삼척 기지 냉열 활용
연간 2000억↓, 250만t 온실가스 감축

40여년간 구축 전국 5000㎞ 주배관망
미래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 활용





❶ 한국가스공사 수소혼입 시험시설 전경. ❷LNG 캐나다 전경. ❸모잠비크 Coral FLNG 사업 플랜트 전경. ❹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수소혼입 시험시설 전경.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민 모두를 위한 연금
KB거나 KB거나
안정성부터 전문성까지
어떤 연금을 바라든
선택은 결국 KB니까
국민을 가장 잘 아는 KB가
국민의 연금도 가장 잘 합니다
연금, 지금 KB를 만나보세요
Korea Better
KB금융그룹
"가장 든든한 연금이니까"
"가장 탄탄한 수익률의 연금이니까"
"가장 믿을만한 연금이니까"
대한민국 대표연금
당연히 KB
KB국민은행 | KB증권 | KB자산운용
KB손해보험 | KB국민카드 | KB라이프 | KB캐피탈 | KB부동산신탁 | KB저축은행 | KB인베스트먼트 | KB데이타시스템
KB금융그룹

與 조작기소특검법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 '맞불'… 정국 급랭

민주당 "공소 취소 조항 제거
야당 더이상 반대할 명분 없어"
국힘, 규탄집회·장외투쟁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공소취소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과정의 위법 행위를 밝혀야 한다며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국회 규탄집회와 장외투쟁,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조작기소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전날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여야는 지난 4일에 이어 이날에도 조의장 주재로 법안 상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주택공급 관련 법안 등의 상정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되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 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오전 다시 열린 회동에서도 여야 합의는 불발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회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문제 삼던 공소 취소 조항은 완전히 제거했고 모든 공소와 관련된 내용을 제거했다. 그래서 야당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더불어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민주유공자법, 주택공급 관련 법안의 처리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찬성 토론으로 맞서는 한편, 종결 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종결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대응 방안에 대해 "같이 무제한 토론을 할 것"라고 말했다. 이어 종결 표결을 곧바로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내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정도 (예상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대통령 재판취소법'으로 규정하고 원내외 투쟁 일정을 구체화했다. 본회의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특검법 처리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이 특검법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짓고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강요하는 최악의 재판개입 유도"라며 "국민과 함께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추가된 데 대해서는 "친문(친문재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문재인 정권의 패륜적 범죄까지 없애주겠다는 면죄부 나눠 먹기"라며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의 추악한 밀실 거래로 탄생한 최악의 역사 조작 기도"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규탄대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7일 오후 3시에는 서울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일정을 잡은 배경에 대해 "(공소취소)특검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장외투쟁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라며 "의원들은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에도 상황을 지켜보며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결의안 2건이 처리됐다.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총투표수 167표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초광역전략산업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은 찬성 145표, 반대 10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찬성 토론으로 대응하면서 종결 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는 오는 6일 오후 종결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여야, 반도체 호황에 쌓인 세수 놓고 격돌

예산결산특별위 종합정책질의
"국채 갚아라" vs "성장에 투자"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세수가 걷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5일 미래대응기금으로 여윳돈을 쌓아놓는 대신 국채를 상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세수가 많이 나올 때 국채를 상환해서 금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지 말고 국부펀드를 만들거나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초과 세수를 두고 "반도체가 이재명 정부에서 잘 해서 됐나"라며 "기업이 잘 해서 늘어난 부분을 갖고 공돈이 생긴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강변했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기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교육·인재 계정을 담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왜 이를 제외하고 굳이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기존의 객관적 시스템이 있는데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구조를 만드냐"며 "국민들이 볼 때는 정부가 쌈짓돈 만드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도 "기금 여유 재원이 104조원이고 국가채무 발행이 106조원이다.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리고 한쪽에는 여유 재원을 쌓아놓겠다는 것"이라며 "한쪽에는 빚을 내고 한 쪽에 쌓아 놓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박홍근 장관은 "통상적 지출과 이례적 수입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다른 나라의 선례도 있고 국가채무 상황을 각자 다르게 보기 때문에 (기금의) 투자나 활용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종합정책질의에서 성장과 국가채무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민 소통과 야당 설득을 박홍근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있지 않냐"고 묻자 박 장관은 "철저하게 추이와 전망까지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李 대통령,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제48회 상하이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오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바이오 R&D 투자·규제 혁신 '한목소리'

›› 1면 '규제 풀고 AI 융합'서 계속

묵 대표는 정부 R&D 자금 집행 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주문했다. "정부 지원이 보조금 형태로 뿌려지면 '눈먼 돈'이 되어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며, "보조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성공불융자 등 회수 메커니즘을 구축해 자금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지원 대상 선정 평가 제도 역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그는 "공정성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지는 '나눠먹기식' 지원을 배제하고, 신약 개발 경험이 없는 대학 교수가 임상 과제를 평가하는 파행을 끊어야 한다"며 "해외 전문가 초빙 등 철저히 검증된 평가 체계를 통해 임상 2·3상을 수행할 수 있는 '빅파마·바이오벤처 연합군'에 집약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패 데이터가 진짜 자산"

서울대학교 이현숙 교수는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높이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정책의 중요성을 알렸다. 인공지능 신약개발의 핵심은 '실패 데이터'에 있다.

이 교수는 "신약 후보물질의 90% 이상이 임상 단계에서 실패하지만, 이 실패 정보야말로 인공지능을 특화 모델로 만드는 가장 소중한 학습 자산"이라며 "실패 데이터까지 데이터관리계획(DMP)에 등록·학습시킨 모델만이 독보적인 기술 특화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D서 상업화까지 전주기 혁신"

마지막 발표자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양성일 규제특위 위원장은 바이오 규제 혁신 가속화 원칙을 "안전은 더욱 깐깐하게, 절차는 더욱 과감하게"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포괄적 네거티브 및 연구 초기부터 허가·평가를 함께 다루는 사전 규제설계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李, 수능 앞두고 "스마트 안경 단속 만전"

교육부, 부정행위 대응 계획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최근 논란이 되는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기기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지시했다. 또 '창업 사회'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필요한 교육 과정 개선·재정 지원 확대·규제 혁신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수능이 예정된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장착된 스마트 안경이 화두로 떠올랐다. 수험생들이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토익 등 어학 시험뿐 아니라 국가 기술 자격시험과 중·고등학교의 지필고사, 일부 대학 논술 시험 등 스마트 안경을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스마트 안경 활용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 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 부정행위 적발자에 대해서도 수능에 준하는 조처를 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과실을 전(全) 국민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창업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조금 더. 해보고 싶어
조금 더. 잘하고 싶어
조금 더. 좋아지고 싶어
조금 더. 도전하고 싶어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었던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

아직도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오늘도 조금 더”

We Do Technology | SK hynix

초심

건강보험 조직 신설로 CSM 확대… '보험이익 회복' 과제

〈신계약 보험계약마진〉

정문철 KB라이프 사장
상품 다각화, 보험·투자손익 성장
올해 누적 수입보험료 3.8조 선방
CSM 4412억 전년대비 15% 늘어
보험영업손익 2013억 6.7% 줄어
예실차 95억 이익→364억 손실로



정문철 KB라이프 대표이사 사장. /KB라이프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이 취임 후 혁신상품본부를 신설해 건강보험 개발과 인수심사를 한 조직에 모으고, 연금 상품과 판매채널도 넓혔다. 올해 1~9월 수입보험료는 계획을 웃돌고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도 늘었지만, 보험영업손익은 전년 동기보다 줄었다.

◆ 건강보험 키우고 종신·연금 강점 살린다

KB금융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024년 12월 당시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이던 정 사장을 추천하면서 상품 다각화와 보험·투자손익의 균형 성장을 기대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해 올해 말 첫 임기가 끝나는 정 사장은 신년사에서 "채널과 상품이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기존 강점인 종신·연금보험의 시장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정 사장은 '내실 있는 확장'을 내걸고 경영 슬로건 '넥스트 이즈 나우(Next is Now)'에 이 같은 전략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을 담았다.

건강보험은 KB라이프가 2024년부터 개척을 추진한 시장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에도 KB라이프 보험부채에서 사망·변액사망 담보 비중은 57.9%였다. 사망 담보는 낮은 손해율로 안정적인 이익을 뒷받침해 왔지만, 보장성보험 수요가 건강·상해보험으로 이동하면서 새 고객을 확보할 상품이 필요했다.

정 사장은 취임 첫해 신설한 혁신상품본부에 삼성화재에서 장기보험 상품을 개발한 한기혁 상무를 본부장으로 영입했다. 지난해 4월 첫 종합건강보험 'KB 딱좋은 요즘 건강보험'을 내놓은 뒤 유병자용과 온라인 상품으로 판매 대상을 넓혔다.

올해 3월에는 진단금 중심에서 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 계약 유지율과 손해율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4월 출시한 간병보험에는 치매 신약 치료와 장기요양 보장을 담았다.

연금보험에서는 1월 장기간 유지할수록 연금 재원이 커지는 보증 구조를 적용한 'KB 넥스트 레벨업 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채널에선 지난해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KB라이프파트너스에 200억원을 출자하고 외부 GA와 온라인 판매도 넓혔다.

정 사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시니어 사업은 1월 문을 연 KB라이프 역삼센터에서 보험과 은행, 요양 상담을 한곳에 모으는 방식으로 구체화했다.

◆ 예실차 악화에 보험손익 감소

KB라이프의 올해 1~9월 전사 수입보험료는 약 3조8000억원으로 회사 계획을 약 1730억원 웃돌았다. KB라이프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판매 확대를 배경으로 꼽았다. KB금융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3분기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신계약 CSM은 441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1% 늘었다. CSM은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뜻한다.

같은 기간 개별 기준 보험영업손익은 201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7% 줄었다. 기존 계약의 CSM을 당기 이익으로 인식한 상각이익은 392억원 늘었으나, 실제 보험금·사업비 등이 예상과 달라 생긴 손익인 예실차는 95억원 이익에서 364억원 손실로 돌아섰다.

예실차 악화 폭 459억원이 상각이익 증가분을 넘어섰다. KB라이프는 교육세율 인상 등을 보험손익 감소 요인으로 설명했다.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등 일부 상품의 손해율과 해지율 상승도 보험손익에 부담이 됐다.

7~9월 보험영업손익은 737억원으로 2분기보다 123억원 늘었다. 개선분 중 95억원은 예실차 손실이 줄어든 데서 나왔다. 전사 손해율은 2분기 63.3%에서 3분기 72.5%로 높아졌다.

1~9월 투자영업손익은 채권·대체투자 평가손실 등의 영향으로 1452억원에서 644억원으로 55.6% 줄었다. 투자영업손익 감소 폭이 보험 부문보다 컸다. 누적 순이익은 2106억원으로 17.3% 감소했다.

첫 임기에 상품과 판매 기반을 넓힌 정 사장에게는 신계약의 가치를 안정적인 보험이익으로 연결하고, 투자손익 변동을 줄여 두 부문의 이익을 함께 키우는 과제가 남았다.

KB라이프는 "CSM 확대를 통한 수익의 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자산배분 다변화를 통해 수익기회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정보유출 대응' 금융사 580곳 전수점검

금융위 '보안체계 혁신' 간담회
AI 해킹 사고 즉시 공유시스템 마련
내달 시범운영, 내년 1분기 전면도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AI 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全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1개월 동안 금융권 37개사에서 약 47만3000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인공지능 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금보원, 국조실, 과기부, 행안부, 개보위, 방미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 생보협, 손보협, 금투협,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 DAXA 등 금융업권별 협회가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신고된 침해 사고는 총 40건으로, 37개 금융사에서 47만3000건의 정보유출이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는 임직원 정보나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회사 영업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들이 대부분으로, 계좌 비밀번호 등 부정결제 우려가 있는 정보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침해 사고에 따른 자금 탈취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핫월렛, 소비성 포인트, 온투업 예치금 등 회사에서 고객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계정 등에서 자금이체가 발생했고, 개별 이용자의 자금손실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침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전 금융권 약 580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 외부 접점 시스템은 물론, 그간 관리가 소홀했을 수 있는 주변부 시스템과 보안 관리 전반의 내부통제 실태까지 빠짐없이 점검한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AI 해킹 특성에 맞춰 개별 회사의 사고 내역을 즉시 공유하는 전파 시스템도 마련한다. 대형 금융회사는 탐지한 공격 방식, 공격자 IP, 악용된 취약점, 악성코드 정보 등을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하도록 해, 금융권 전반의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해당 방안은 다음 달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분기 전면 도입한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보안 규율도 강화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그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만 사고를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사고 발생 시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가상자산거래소 및 보험대리점(GA)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수준의 보안 규율을 적용하는 '디지털금융 안전법'도 내년 1분기까지 제정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분양가 오르는데… 청약시장 '찬바람'

주택산업연구원, 분양 전망 '부정적'
서울 분양시장 전망 한달새 14.3p ⬇
대출규제 등에 자금조달 부담 영향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이 한 달 만에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규제로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 분양전망지수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분양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분양물량 감소와 미분양 증가 우려도 커졌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1.3으로 전월보다 1.0포인트(p) 하락했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9~27일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돌면 분양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보다 많다는 뜻이다.

◆서울 분양 전망 한 달 만에 꺾여

서울은 지난달 105.7에서 이달 91.4로 14.3p 떨어졌다. 지난달 3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 경기도 86.8에서 85.7로 1.1p 하락했다. 인천은 83.3에서 83.9로 0.6p 올랐으나 기준선과는 격차가 컸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92.0에서 87.0으로 5.0포인트 낮아졌다.

주산연은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규제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에 강남권 매매가격 약세가 겹치면서 서울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라 90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주간 상승률은 0.16%, 0.13%, 0.09%로 2주 연속 축소됐다. 강남구(-0.38%)와 서초구(-0.35%), 송파구(-0.22%) 등 강남3구는 모두 하락했다.

전셋값 상승에도 매매거래는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7%로 매매가격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915건으로 전월보다 14.7% 감소했다.

◆ 세종만 기준선 웃돌아

비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80.0으로 전월보다 0.2p 하락했지만 지역별 흐름은 엇갈렸다. 세종은 93.3에서 115.4로 22.1p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준선을 넘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주택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는 게 주산연의 설명이다.

경북도 76.5에서 100.0으로 23.5p 상승해 기준선에 도달했다. 충북은 81.8에서 90.0으로, 경남은 70.6에서 78.6으로 각각 8.2p, 8.0p 올랐다. 대전은 83.3에서 88.2로, 강원은 66.7에서 70.0으로 상승했다.

반면 전북은 84.6에서 60.0으로 24.6p 떨어져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전남도 76.9에서 60.0으로 16.9p 하락했다. 부산은 72.7에서 61.9로, 대구는 80.0에서 70.8로 각각 10.8p, 9.2p 낮아졌다. ▲광주(94.7→89.5) ▲충남(78.6→75.0) ▲제주(70.6→69.2) ▲울산(92.9→91.7)도 하락했다.

◆ 분양가 상승 전망 여전

분양시장 전망이 위축됐지만 분양가격 상승 예상은 여전히 우세했다. 이달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12.1로 전월보다 2.2p 낮아졌으나 기준선을 웃돌았다. 인건비 등 공사비 부담이 이어진 영향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9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9.48로 전년 동월보다 5.94% 상승했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7.1에서 90.9로 6.2p 하락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청약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0.25%p 오른 3.43%로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현진 기자 lhj@

강남3구 하락에도… 서울 집값 91주 상승

부동산원, 전국 0.07% 수도권 0.13% ⬆

서울 집값이 91주 연속 올랐다. 다만 오름폭은 줄었고, 강북권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강남3구는 하락하면서 지역별 흐름이 뚜렷하게 갈렸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2일 기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91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전주(0.09%)보다 0.02%포인트(p) 낮아졌다. 전국 매매가격은 0.07%, 수도권은 0.13% 올랐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을 조정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거래가 발생했지만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지역별로 오르고 내리는 단지가 섞인 가운데 서울 전체로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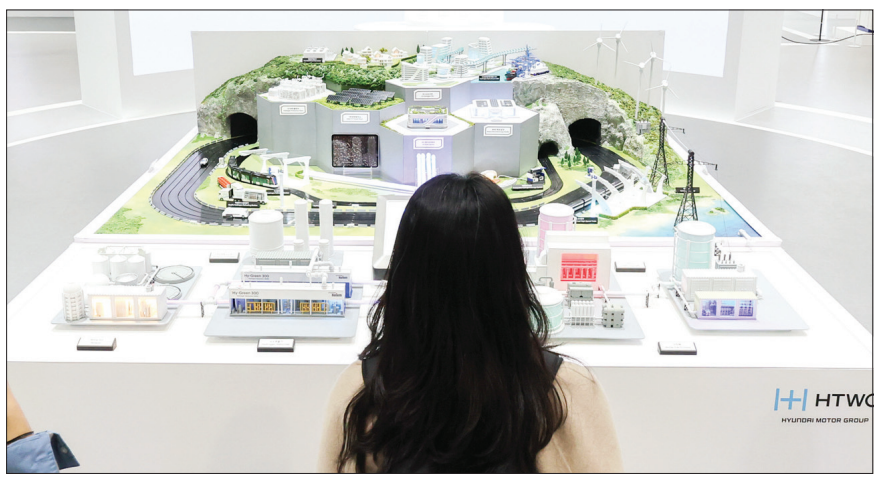
강북에서는 서대문구가 0.3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성북구 0.30% ▲중랑구 0.28% ▲강북구 0.2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구(-0.39%)와 서초구(-0.37%), 송파구(-0.17%)는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안상미 기자 smahn1@

현대차그룹, 미래 수소도시 '디오라마' 공개

WHE 2026

수소 생태계 사례·활용방안 소개
디오라마, 재생에너지·AI 등 연계
업계 "정책적 지원 필요한 상황"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6를 찾은 관람객이 현대자동차그룹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운송, 활용까지 연결한 미래 도시와 산업 모델을 공개하며 생태계 중심의 수소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HE) 2026'에서 수소 생태계의 구현 사례와 활용 방안을 소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시관에는 수소 생산시설과 저장·공급 설비, 수소전기차·철도차량 등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 '수소 도시 디오라마'를 마련했다.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공장, 수전해 시설이 연계된 미래 도시의 모습을 축소 모형으로 구현했다.

영상 전시에서는 ▲새만금 AI 밸리 ▲도시 생활 ▲항만 물류 ▲제조 산업 등 4개 수소 생태계 시나리오를 선보였다.

새만금 AI 밸리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를 지역 전력과 열, 모빌리티 연료로 사용하는 구상을 담았다. 도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로 생산한 수소를 주거단지와 버스·승용차·트램에 공급하는 자원순환 구조를 제시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7월 준공한 'HTWO 에너지 청주'에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하루 500㎏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고, 현장 차량 충전과 인근 지역 공급을 연계하고 있다.

항만 물류 시나리오는 수소를 무인운반차와 트럭, 철도차량에 공급해 항만 안팎의 운송수단을 연결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수소를 철강 생산의 환원제와 열원으로 활용하고 완성차 공장의 지게차와 버너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산업의 경쟁이 개별 제품과 기술에서 생산·운송·인프라·수요처를 아우르는 생태계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청정수소 생산과 공급망 구축, 산업 수요 창출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수소산업은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아 생태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국수소연합의 '2025년 수소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수소기업은 2932개, 종사자는 3만6264명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85%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연구개발(R&D) 전담 부서가 없는 수소기업은 82.7%에 달했다. 수소산업 투자액도 2022년 4조1469억원에서 2024년 4조3373억원으로 4.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소업계 관계자는 "수소산업의 경쟁축이 개별 기술과 제품에서 생태계로 이동하면서 생태계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좌우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대·중·소기업의 협력과 수요·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GS, 3분기 실적개선
매출 7.2조, 영업익 1.2조

GS가 정제마진 강세와 윤활유·발전 부문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3분기 실적 개선을 이뤘다.

GS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7조2706억원, 영업이익 1조2748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24%, 46.4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68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89% 늘었다.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매출은 21조5260억원, 영업이익은 4조25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누계와 비교해 매출은 15.13%, 영업이익은 96.80% 증가했다. 누계 당기순이익은 2조63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08% 늘었다.

사업 부문별로는 석유화학 부문이 납사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자를 이어갔다. 반면 윤활유 부문은 글로벌 공급 차질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발전 부문도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전력도매가격(SMP) 상승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개선됐다.

4분기에는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과 원유 수송 운임 상승이 주요 실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관희 기자

한화에어로, 천무 유도미사일 폴란드 생산공장 착공

2030년 양산 전망… 폴란드 군 조달
현지 생산기반 유럽 방산시장 공략



지난 4일 폴란드 고주프 비엘코폴스키에서 열린 천무 유도미사일 생산공장 착공식에서 한국과 폴란드 양국 정부·군 및 방산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사거리 80㎞급 천무 유도미사일을 생산할 공장을 착공했다. K9 자주포와 천무 수출에 이어 미사일 현지 생산으로 폴란드와의 협력 폭이 넓어지면서 유럽 방산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폴란드 고주프 비엘코폴스키(Gorzow Wielkopolski)에서 폴란드 WB그룹과 설립한 합작법인 HWBAS(Hanwha WB Advanced Systems)의 유도미사일 생산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건설되는 공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해외에 짓는 첫 유도미사일 생산시설로, 약 116만㎡ 부지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지어진다.

공장이 완공되면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K(HOMAR-K)'에 탑재되는 사거리 80㎞급 유도미사일(CGR-080)을 생산하게 된다. 생산설비 구축과 기술이전, 시험·인증을 거쳐 2029년 말 초도 생산에 들어가고 2030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폴란드군은 필요한 유도미사일을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HWBAS는 2025년 9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1%, WB그룹 자회사 WB일렉트로닉스가 49%를 출자하는 조건으로 설립 계약을 맺은 합작법인이다. 이후 폴란드 군비청과 CGR-080 현지 생산·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HWBAS와 맺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유도미사일 생산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할 예정이다.

현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장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2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고 현지 부품·소재 조달과 협력업체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폴란드 지역경제와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오션-ABB
FDC 기술개발 '맞손'

한화오션이 글로벌 전기화·자동화 기업 ABB와 손잡고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선다.

한화오션은 ABB와 부유식 데이터센터의 전력·제어 시스템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화오션의 해양설비 설계·건조 기술과 ABB의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 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2027년 5월까지 부유식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 전력 시스템 설계를 검토하고 발전 설비와 전력 시스템을 연계한 운영·제어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 우수 연구자 선정

애뉴얼 포럼 개최… 450명 참석

삼성전자가 14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온 기초과학·미래기술 연구 지원사업에서 우수 연구자 10명을 처음 선정했다. 지원 과제에서 코스닥 상장사와 스타트업이 나온 가운데, 삼성은 수상자에게 후속 연구와 창업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5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파르나스에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2026 애뉴얼 포럼'을 열고 우수 연구자 10명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2014년 시작돼 지난해부터 외부에 공개되고 있으며, 이날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여야 의원 4명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2013년 시작한 민간 주도형 R&D 지원사업이다. 삼성은 당시 10년간 1조5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기초과학과 소재, ICT 분야 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916개 과제가 지원을 받았고, 연구 인력 1만 7000여 명이 참여했다.

우수 연구자는 지원이 끝난 과제 644개를 대상으로 뽑았다. 연구 우수성과 성과 확장성, 산업계 파급력 등을 종합 평가해 분야별로 1명씩 선정했으며, 석학으로 꾸린 심사위원단이 약 4개월간 심사했다. 기초과학 분야 4명, 소재·ICT 분야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홍근 삼성전자 SAIT 원장은 "연구 단계에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 창출로도 이어졌다"며 "이러한 사업의 방향이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게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믿어왔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구 차관도 과학기술인이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주도하는 주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S그룹, 금속 원자재 조달·가공 사업 통합

통합법인 'LS메탈플러스' 재편

LS그룹이 계열사별로 나뉘어 있던 금속 원자재 조달과 가공 사업을 하나로 합친다. 금속 트레이딩 계열사 LS글로벌이 LS일렉트릭 자회사 LS메탈의 동관·스테인리스 가공 사업을 인수해 통합법인 'LS메탈플러스'로 재편한다. 원자재 구매부터 생산과 판매까지 한 회사가 맡게 되면서 원가 경쟁력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LS는 자회사 LS글로벌이 LS메탈의 동관 및 스테인리스 가공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 연관성이 높은 계열사를 결합해 그룹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취지다. 통합법인은 오는 12월 LS글로벌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변경 승인을 거쳐 2027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다.

2005년 설립된 LS글로벌은 그동안 전기동 등 금속 원자재의 조달과 트레이딩을 해왔다. 여기에 2010년 LS일렉트릭 금속사업부문에서 분할된 LS메탈의 동관·스테인리스 강관 생산 역량이 더해지면서 조달부터 가공과 판매까지 아우르는 종합 금속 가공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통합법인은 전기동을 통합 구매해 협상력을 높이고 재고 운영과 동 선물·헤지(Hedge) 거래도 일원화할 예정이다.

사업을 넘긴 LS일렉트릭은 확보한 재원을 전력 인프라 투자에 투입한다. 전력 슈퍼사이클에 대응해 생산능력(CAPA)을 늘리고 핵심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부 차입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지주회사인 ㈜LS는 LS글로벌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키로 했다. ㈜LS는 매출 약 1조3000억원, 자산 약 1조원 규모의 LS메탈플러스를 그룹의 금속 트레이딩 및 가공 핵심 플랫폼으로 키워 주주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QD-OLED 마케팅 강화

삼성디스플레이가 국내 PC방에 해당하는 중국 인터넷 카페에서 QD-OLED 모니터 체험 마케팅을 강화한다. 현지 주요 판매처인 PC방을 거점으로 게이머들에게 제품 성능을 알리고 프리미엄 모니터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에이수스(ASUS) 등 6개 모니터 브랜드와 협력해 중국 인터넷 카페에 퀀텀닷 유기발광다이오드(QD-OLED) 체험 매장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10곳을 조성했으며 연말까지 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체험 매장은 QD-OLED 모니터를 30대 이상 설치한 PC방 중에서 선정한다. 선정된 매장에는 QD-OLED 로고가 새겨진 간판과 홍보물을 지원한다.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중국 PC방과 협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남영 기자

인니 제조업 혁신 이끈 K-스마트공장… 기술 수출까지 결실

이노비즈협회, 4년간 ODA 사업 성과
현지 제조기업 30곳 디지털 전환
참여기업 생산성 최대 60.1% 향상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134명 양성
국내 기업 150만달러 수출 계약 체결



지난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협동조합부 청사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ODA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부터)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사,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한국의 스마트공장 혁신 기술과 전문 인력 양성 노하우가 인도네시아 제조 현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참여기업들의 생산성이 목표치보다 최대 4배 가까이 느는 등 가시적인 효과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K-스마트팩토리' 기술 수출 가능성도 엿보였다.

5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협동조합부 청사에서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을 비롯해 페리 줄리안또노(Ferry Juliantono) 인도네시아 협동조합부 장관,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양국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4개년간의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기술혁신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4년간 총 63억8000만원을 투입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 사업은 일방적인 물적 원조 방식에서 탈피해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스스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립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노비즈협회는 4년간 인도네시아 협동조합부·중소기업부, 비누스대학교와 협력해 2024년 6개사, 2025년 12개사, 2026년 12개사 등 총 30개사의 제조 공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생산성 혁신을 뒷받침했다.

특히 2024년에 참여한 6개사의 생산성은 전년 대비 평균 38.3%나 늘어나며 목표치인 10%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참여한 12개사 가운데 생산성 측정을 끝낸 9개사의 평균 생산성도 14.8% 증가하며 목표치(12%)를 넘어섰다.

그중에서도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인 PT. Bimuda Karya Teknik는 스마트공장 컨설팅·구축 등의 지원을 통해 생산량이 무려 60.1%나 향상됐다. 낙농협동조합인 PT. SUSU KPBS는 품질과 생산성이 각각 20%, 10%씩 높아졌다.

이노비즈협회는 스마트팩토리 관련 전문 기술인력 134명도 양성했다. 당초 양성 목표 인원은 130명이었다. 이 가운데 43명은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최초의 스마트팩토리 전문 교육센터가 비누스대학교 브카시 캠퍼스에 문을 열었다. 이곳에는 이론 강의실, PLC 트레이닝 랩, 제조 물류 실습 랩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엔 국내 공급기업 솔루션 상설 전시장도 꾸몄다.

한국의 인도네시아 기술 지원은 국내 우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의 해외 수출로도 연결됐다.

국내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인 이엠포커스(EM Focus)는 현지 기업인 PT. Internex Indonesia와 150만 달러(약 20억원)의 자체 개발 제조실행시스템(MES)을 2년간 공급하는 본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다른 국내 기업인 긴트는 현지 회사와 협력해 투자 유치·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광천 회장은 "이번 ODA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자립 생태계를 완성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기술혁신형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새로 출범한 AVITEK KUKM과 긴밀히 협력해 아세안 시장 내 한-인니 기술 협력을 전 방위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G화학, 배터리 선방에도 석화 적자에 발목

3분기 영업익 5612억·전년比 17.4%↓
석유화학 1756억 손실·첨단소재 개선
中 공급과잉 지속에 내년 회복도 난항

LG화학이 올해 3분기 석유화학 부문에서 다시 적자를 냈다. 2분기 흑자를 냈던 석유화학이 원료가 역래깅과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한 분기 만에 손실로 돌아섰다. 첨단소재와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내년에도 중국발 공급과잉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석유화학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5조4960억원, 영업이익 5612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4%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7.4%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9.3% 늘었고 영업이익은 6.4% 줄었다.



LG화학 여수 NCC 전경. /LG화학

사업부문별로는 석유화학 부문이 영업손실 1756억원을 기록했다. 비싸게 사들인 원료로 만든 제품을 제품 가격이 떨어진 뒤에 팔아 마진이 줄어드는 역래깅에 운반비 증가와 환율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소재 부문은 매출 1조726억원, 영업이익 397억원을 냈다. 전지소재 물량 증가와 일회성 수익 반영, 반도체·자동차 등 전자소재의 견조한 실적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됐다.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은 매출 9조6434억원, 영업이익 7560억원을 거뒀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출하량이 크게 늘고 전기차용 원통형과 고전압 미드니켈 파우치 배터리 공급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성장했다. 유럽 공장 가동률 개선과 북미 ESS 생산 안정화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며 수익성도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석유화학 업황이 내년에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주력 제품인 고부가합성수지(ABS)는 중국산 저가 물량이 늘어난 데다 가전·자동차 수요 회복이 더뎌 고객사들의 신규 구매가 감소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2031년까지 약 800만톤 규모의 설비가 폐쇄될 예정이지만 같은 기간 신증설 규모는 2900만톤에 달한다. /원관희 기자 wkh@

김윤 "AI를 R&D 핵심 인프라로 삼아야"

〈삼양그룹 회장〉

판교서 '삼양 이노베이션 R&D 페어'

"인공지능(AI)을 연구·개발(R&D)의 기본 인프라로 내재화해 차별화된 연구 경쟁력을 구축해야 한다"

김윤 삼양그룹 회장은 지난 4일 경기도 판교 삼양디스커버리센터에서 열린 '삼양 이노베이션 R&D 페어(SIRF) 2026'에서 "글로벌·스페셜티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사업 전략과 연계해 R&D의 우선순위와 핵심 역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략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연구 현장에는 과감한 도전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미래 고객의 변화와 산업 흐름을 살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 제안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확인된 연구는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R&D는 필연적으로 한번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실패를 거칠 수밖에 없는 만큼, 끝까지 해내겠다는 열정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삼양그룹 연구원들이 한 해 동안 거둔 R&D 성과를 전시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기 상품화에 성공한 과제를 선정해 포상하고 연구원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높이고 지식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 우수상에는 '레이저 용접용(Laser-weldable) 컴파운드 소재 개발' 과제와 '원자력 발전소용 이온교환수지 개발' 과제가 선정됐다. /원관희 기자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에 경찰도 나선다

중기부, 11일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올해 1~10월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723건 가운데 14건을 수사의뢰하고 2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정부는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1일부터 12월8일까지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신고기간엔 경찰청이 새롭게 참여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용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TF) 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신고포상금 확대, 자진신고자 면책 확대 등을 통해 신고 유인을 높이고 접수된 신고가 수사의뢰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대출 실행 조건으로 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 명칭을 불문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호 기자

롯데렌탈

수익성 중심 체질 개선 3분기 실적 동반 성장

롯데렌탈이 고수익 렌탈 상품 확대와 비용 효율화로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끌어올렸다. 롯데렌탈은 5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7754억원, 영업이익 92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4.4% 증가한 규모다. 영업이익률은 12.0%로 0.3%포인트 개선됐으며,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영업익은 9.8% 늘었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조정 영업이익은 9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4억원으로 24% 감소했지만,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조정 당기순이익은 455억원으로 15.5% 늘었다. /양성운 기자 ysw@

신세계까사, 디자이너 협업 가구 매출 성장세

MK2·아우로라 2·3분기 연속 성장

신세계까사의 리빙&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까사미아(CASAMIA)'가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선보인 '디자이너스 컬렉션(DESIGNERS COLLECTION)'이 출시 초기 흥행을 넘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출시한 'MK2' 다이닝 시리즈와 '아우로라' 베드룸 컬렉션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나란히 매출이 증가했다.

5일 신세계까사에 따르면 일본의 가구 디자이너 '미키야 고바야시(MIKIYA KOBAYASHI)'와 협업한 'MK2' 다이닝 시리즈는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98% 증가한 데 이어 3분기에도 20% 신장했다.

간결하고 모던한 디자인에 원목 특유의 따뜻한 감성을 더한 것이 특징으로, 유행을 타지 않는 스타일과 다양한 인테리어에 어우러지는 실용성을 갖춰 2030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파트리시아 우르퀴올라(PATRICIA URQUIOLA)'와 협업한 '아우로라(AURORA)' 베드룸 컬렉션도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특히 지난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3배가량 신장했으며 3분기 매출도 두 자릿수 증가했다.

아우로라는 독창적인 실루엣과 섬세한 디테일, 과감한 컬러와 소재의 조합으로 침실 공간에 예술적인 감각을 더한 컬렉션이다.

까사미아는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고유한 디자인 철학을 가구에 담아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에 대응하는 한편, 협업 컬렉션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김승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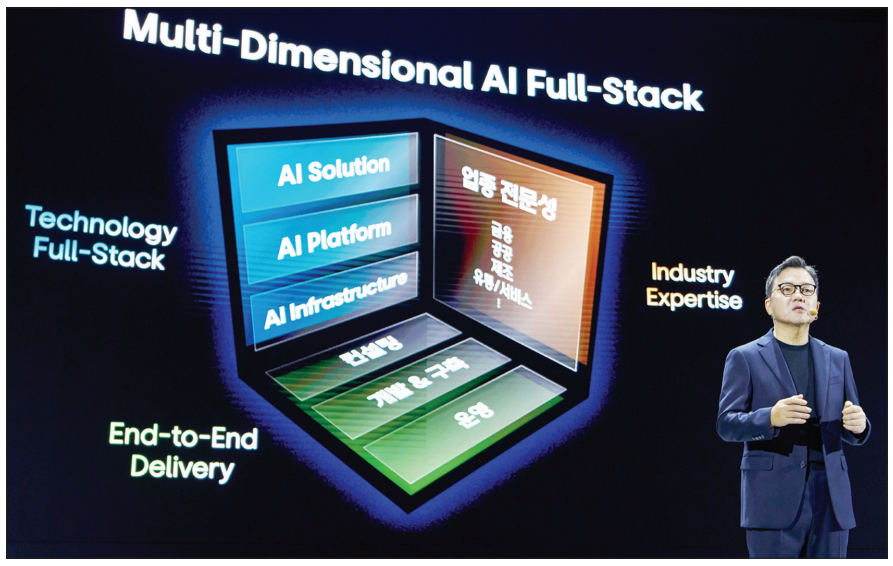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S HOUSE BRAND GORILLA

‘AI 풀스택 전환’ 나선 삼성SDS, 10조 들여 IT 체질 개선

창간기획 리부트 코리아
K산업의 화려한 부활

㊳ 삼성SDS

2031년까지 AI 인프라 등 10조 투입
KKR과 협력해 인수합병도 추진
국가·기업 AI 인프라 구축 주도
우정항공 인수, 항공 화물사업 진출



삼성SDS 이준희 대표이사(사장)이 지난 9월 8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엔터프라이즈 AX 콘퍼런스 ‘리얼 서밋 2026’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삼성SDS

삼성SDS가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2031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해 사업 구조 혁신에 나선다. 인수합병(M&A)와 설비 투자에 신중하던 경영 기조를 탈피하고, IT 서비스·물류 중심에서 ‘AI 풀스택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현금 풀고 10조 투자…글로벌 AI 풀스택 기업 도약

삼성SDS은 글로벌 AI 풀스택 기업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AI 풀스택 사업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연산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클라우드 또는 AI 플랫폼으로 제공해 기업의 인공지능전환(AX) 지원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가장 큰 강점은 현금 창출력이다. 그동안 삼성 계열사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 재원을 축적했다. 현재 현금성 자산은 약 7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중장기 현금 활용 로드맵도 공개했다. 그동안 인수합병(M&A)과 설비투자(CAPEX)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자금을 사업 영역 확장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10조원이다. 2031년까지 AI 인프라(5조)와 글로벌 M&A(4조), AX 플랫폼 서비스(1조)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 비중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냉각 장치, 최상위 GPU 확보에 집중됐으며, 그룹 내 AI 컴퓨팅 역량 강화를 위해 건립하는 구미 AI 데이터센터에만 4273억원이 투입된다.

인수 합병도 과감하게 도전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대형 IT 서비스 기업 투자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사모펀드 KKR에 1조2200억원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신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네트워크와 M&A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6년간 KKR과 투자 대상 발굴부터 자본 배분, 글로벌 사업 확장까지 추진한다.

◆국가·기업 AI 인프라 구축 주도…공공시장 복귀 6년 만

삼성SDS는 정부 주도로 전남 해남군에 구축하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을 총괄한다.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삼성SDS의 지분율은 30%로 가장 높다. 이달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부터 가동된다.

한때 삼성SDS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었다. 2013년 정부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들의 공공 입찰을 제한하면서다. 당시 LG CNS와 SK C&C(현 SK AX) 등 SI 기업이 국방, 안보와 같이 예외를 둔 사업에서 수주를 지속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그러다 2019년 이후 디지털 뉴딜 정책과 규제 완화 등을 계기로 공공 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다시 진입했다. 독자 브랜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을 무기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 공략해 대외 사업을 넓혀가고 그룹사 내부 거래 비중을 점차 낮추고 있다.

삼성 계열사의 제조 로봇 전환(RX)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삼성이 약 6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추진하는 영남권 첨단산업 투자 계획에 따른 것이다. 삼성SDS는 이달 착공한 구미 AI 데이터센터가 그룹의 피지컬 AI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외부 기업을 유치해 대외 매출 비용을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규모도 초기 60㎿에서 최대 120㎿로 확대한다.

◆IT서비스에서 AI로 체질 개선…물류는 디지털화로 경쟁력 강화

삼성SDS 매출 구조에서 물류는 여전히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다만 영업이익률이 2% 안팎으로 낮아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항공 화물 사업에 직진출해 글로벌 항공물류 역량을 확보한다. 지난 10월 인천국제공항에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우정항공 지분 100%을 인수했다. 여기에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를 연결해 데이터 기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AX 플랫폼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는 기존 IT 시스템 구축 중심의 사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AI 풀스택 사업을 기업 고객에 다층적으로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연산 자원 분야에서는 올해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기반 서비스형 GPU(GPUaaS)를 정식 출시했다. 또한 기업 업무를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 ‘브리티웍스 코워크’부터 제조 현장의 로봇을 통합 제어하는 로봇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까지 AI 인프라와 플랫폼, 산업 현장을 아우르는 풀스택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는 지난 9월 열린 ‘리얼 서밋’에서 다차원 AI 풀스택 전략을 발표하며 “진정한 AI 풀스택은 기업의 AX 실행을 돕기 위한 컨설팅은 물론 개발과 구축,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KT, 기업 AX 도입 ‘길잡이 플랫폼’ 출시

간단한 문답으로 AX 도입 현황 진단
산업·업무별 AX 전략·솔루션 제공

#.제조기업 B사는 견적서와 보고서 작성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업무 자동화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부서마다 업무 절차와 시스템이 제각각이어서 자동화할 업무를 선별하는 것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 컨설팅을 받자니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

KT가 기업 고객들의 이같은 고민을 덜어줄 업무 자동화 지원 플랫폼을 선보였다. 인공지능전환(AX) 도입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5일 KT는 AX 전문 플랫폼 ‘KT AX 비즈 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AX 전략 수립부터 솔루션 검토, 도입 사례 확인, 전문가 상담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업의 관심 분야에 따라 ▲산업별 AX 전략·솔루션 ▲업무 과제별 솔루션 ▲탐색·파일럿·확산·최적화 등 단계별 추진 전략 ▲KT AX 상품·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기업 고객은 자사 업무 환경과 비즈니스 과제에 적합한 솔루션과 실제 도입 사례를 확인해 AX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AX 솔루션 컨설턴트’ 기능을 통해 간단한 문답만으로 기업의 AX 현황을 진단하고, 비즈니스 과제에 적합한 솔루션을 추천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 수준, 업무 혁신 수요 등 총 6개의 항목에 답하면, 짧은 시간 안에 리포트 형태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아울러 토큰팩토리를 비롯해 에이전틱 On, NPU LLM 스테이션 등 KT의 주요 AX 상품과 서비스 정보도 제공한다. 기업은 AX 전략 수립부터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 AI 에이전트 적용, 운영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술 파트너사와 연계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도 있다.

앞으로 KT는 실제 실행과 확산까지 지원하는 전문 플랫폼으로 지속 고도화해 갈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SKT, 부산불꽃축제 대비 통신 대책 가동

AI 관제로 품질 사수

SK텔레콤은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통신 품질 안정화를 위한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7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는 부산불꽃축제에는 관람 인파만 120만 명을 웃돌 전망이다. 이에 SK텔레콤은 기존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체감품질 만족률’ 지표를 더했다. 행사 지역과 서비스 유형별로 품질을 세밀하게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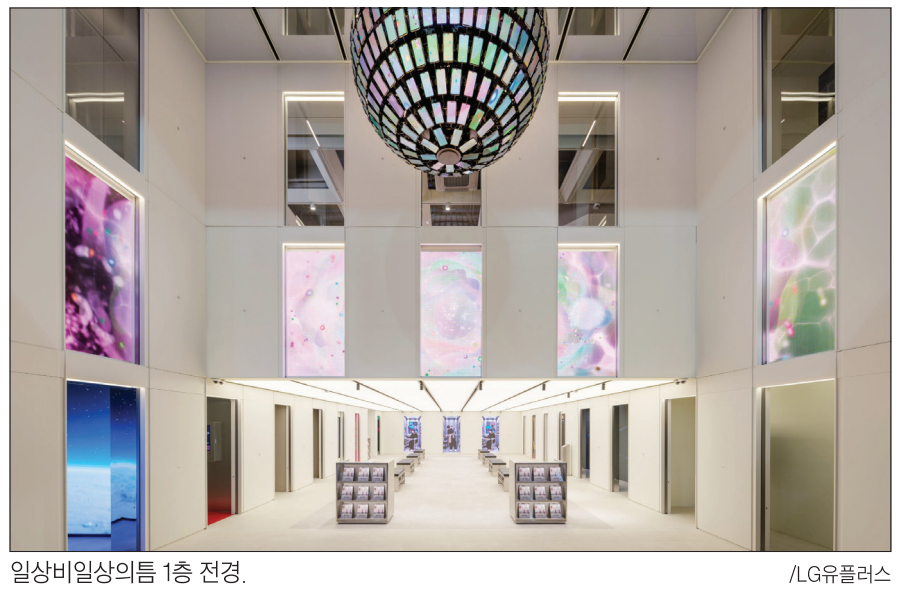
체감품질 만족률을 통해 서비스 이용 중 기준 품질을 얼마나 유지했는지 알 수 있다. 데이터 손실이나 전송 지연 없이 웹페이지와 콘텐츠가 원활하게 전달되는지 등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겪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최고속도 중심의 기존 품질 관리 방식을 보완해 실제 사용자가 체감하는 품질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외 정부와 주요 통신사들도 최근 유사한 방향으로 품질 평가 기준을 바꾸는 추세다.

또한 유형별 품질 차이를 가려낼 수 있다.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트래픽 특성에 따라 웹·SNS·비즈니스 협업·고화질 스트리밍 등 4대 유형으로 나눠 분석한다.

분석 해상도도 높아졌다. 품질 저하가 발생한 지점을 격자 단위 GPS 좌표로 분석해 문제 구간을 정확히 짚어낸다. 또 AI가 위치 데이터로 KTX·지하철 이동 여부 및 거주 여부 등을 구분해, 고객이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상황(TPO)별로 품질을 살펴 관리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체 개발한 무선망 AI 운용 시스템 ‘에이-원’에서 예상 운집 인원과 과거 트래픽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한 용량을 미리 산출하고, 코어망 AI 통합관제 시스템 ‘스파이더’로 이상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행사 당일에는 AI 기반 실시간 부하 분산 제어도 적용해, 혼잡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민선 기자


일상비일상의틈 1층 전경. /LG유플러스

LGU+, ‘틈’ 방문객 체류시간 2배 증가

전시 관람하고 창작 활동

LG유플러스의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이 고객이 머물고 참여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5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9월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의 방문객 평균 체류시간이 재단장 한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방문객들은 평균 1시간 11분 가량 머물렀는데, 이는 기존 체류시간(30분)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전시를 관람한 뒤에는 지하에 있는 라운지에서 쉬거나 창작 활동을 하며 길게는 4시간까지 머무는 방문객도 있었다.

고객 만족도도 높아졌다. 재방문 및 추천 의향을 나타내는 고객추천지수(NPS)는 오픈 후 한 달간 94.95점을 기록하며 기존 대비 40점 이상 상승했다. 현장에선 “공간이 좋아 가족과 다시 찾았다”, “친구 추천으로 방문했는데 기대 이상이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리뉴얼 이후 틈을 찾는 고객도 다양해졌다. 기존 젠지(Gen Z)세대 중심에서 미술 전공생과 예술 애호가뿐 아니라 어린이 동반 가족, 50대 이상 중장년층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화의날인 지난 달 17일에는 방문객 수가 1000명을 넘기도 했다.

회사 측은 “‘관람-참여-발견-창작’으로 이어지는 공간 경험의 변화가 체류시간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람객들은 AI 아트 메이트를 통해 자신의 감상 스타일에 맞는 해설을 듣고 참여형 작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관심 작품을 태그하면 ‘아트 리포트’를 최종 출력해 자신의 예술 취향을 확인할 수 있다. 관람 후에는 유플러스 라운지에서 서로 감상을 나누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틈을 통해 사람들을 예술과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서로에게 더 가까이 잇는 또 다른 연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미래에셋, AI·디지털자산 중심 인사 개편… '3.0 전략' 본격화

승진 임원 20% 기술·보안 전문가
정보보호 조직 격상·IT 수장 교체
디지털엑스 대표에 노용우 내정
WM·연금 현장 리더 30% 차지
40대 승진자 64%·여성 17%


서울 중구 을지로 미래에셋 본사 전경.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그룹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자산을 중심으로 한 '미래에셋 3.0' 전략을 사업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기술·보안·영업 조직을 재정비했다. 승진 임원 5명 중 1명을 기술 분야 전문가로 채우고 정보보호 조직을 격상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을 이끌 새 수장을 내정하는 한편 자산관리(WM)·연금 현장 리더를 중용해 기술 전환을 고객 서비스와 영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에셋그룹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를 미래에셋 3.0의 원년으로 삼아 글로벌 투자 플랫폼 MAPS를 출범한 데 이어, AI를 자산운용(AM)과 자산관리(WM) 전반에 접목할 실행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승진 임원 20% 기술 전문가… 정보보호 조직도 격상

이번 인사의 핵심은 AI전환(AX)·디지털·정보보호 분야의 리더십 강화다. 전체 승진 임원 가운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다. 그룹 차원의 AX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사업 전반에 적용해 기술 기반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보안 대응 조직의 위상도 높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정보보호부문 대표에 사재식을 선임하고, 사재식 정보보호본부장을 전무로 승진시켰다. 사이버침해대응팀과 개인정보보호팀에서도 이사 승진자가 나왔다. 보안 취약점 점검과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해 고객 자산·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기술과 고객 서비스를 연결하는 조직에도 인력을 배치했다. 미래에셋증권 IT부문 대표에는 김준환을 선임했으며, 고객서비스혁신부문 대표에는 이기상을 선임했다. 승진 명단에는 AI자산관리솔루션팀, AI 사이언스(Science)팀, 데이터(Data) 플랫폼팀 등도 포함됐다.

◆디지털자산·전력 인프라 확장… WM·연금 현장 중용

디지털자산 사업에서는 디지털엑스(Digital X) 대표이사로 노용우 부사장을 내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대표이사 변경신고 수리 후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노 내정자는 1968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2021년 11월부터 경영혁신부문 대표를,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그룹위험관리부문 대표를 지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혁신추진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인물이다.

그룹은 노 내정자의 경영혁신·위험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엑스를 미래에셋 3.0의 핵심 축으로 삼아 계열사의 금융 역량과 디지털자산 사업 간 시너지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에는 인프라 투자 전문가인 우신제 미래에셋자산운용 상무를 선임했다.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더해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AI 데이터센터용 전력 인프라 등으로 투자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고객 접점에 있는 영업 인력도 중용했다. 전체 승진자의 30%를 WM·연금영업 현장 리더로 구성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RM1부문 대표에 이정원, 연금법인솔루션부문 대표에 정진성, 연금혁신부문 대표에 박상준을 각각 선임했다. 대고객 서비스와 영업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자산관리·연금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40대와 여성 리더 발탁도 확대했다. 국내외 전체 승진 임원 중 40대 비중은 64%로 3명 중 2명에 가까웠고, 여성 비중은 17%였다.

미래에셋그룹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그룹 전반에 내재화하고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아우르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룹 측은 "'클라이언트 퍼스트(Client First)' 철학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투자 경험과 새로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회계사 합격해도 일할 곳 부족… 선발 축소론

합격자 300명 실무수습처 못 구해
회계법인 채용 감소에 AI 확산까지


지난 4일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AI 등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인회계사 수요에 관한 연구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수습을 할 곳을 구하지 못하는 인원이 쌓이면서 연간 선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회계법인의 채용이 줄고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신입 회계사가 맡는 업무도 감소할 수 있는 만큼, 향후 2~3년간 선발인원을 현행 1150명에서 연 850~1000명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회계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계정책연구원과 지난 4일 상장회사회관에서 'AI 등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인회계사 수요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합격해도 수습처 부족… 회계법인 채용 감소

황문호 경희대 교수 등 한국회계학회 연구진에 따르면 회계법인 매출 증가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8%로 둔화했다. 신규 채용에서 퇴사 인원을 뺀 순고용은 2023년 1160명에서 2025년 370명으로 줄었다.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시작하는 비중도 낮아졌다. 당해연도 합격자의 수습개시 비중은 2022년 89.2%에서 지난해 63.6%로 하락했다. 합격자 10명 중 해당 연도에 수습을 시작한 인원이 약 9명에서 6명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연구진은 올해 9월 기준 실무수습처를 찾지 못한 인원을 약 300명으로 추정했다. 재학생 등을 포함한 전체 미지정 인원은 723명이며, 이 가운데 2024~2025년 합격자는 623명이다.

이해관계자 인식조사에서도 선발 규모가 많다는 응답이 나왔다. 최근 선발인원에 대해 일반기업 응답자의 67.6%, 수험생의 45.9%가 '많다'고 답했다.

향후 5년간 적정 선발인원이 '1000명 이하'라고 응답한 비중은 일반기업 69.0%, 수험생 48.3%였다. 응답을 가중평균해 산출한 적정 선발인원은 일반기업 933명, 수험생 1012명으로 현행 1150명을 밑돌았다.

◆AI 영향 신입에 집중… "수습 수용능력도 고려해야"

연구진은 AI 등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회계법인 감사부문 인력 수요가 3~5년 후 약 10%, 5년 이후에는 약 12~1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AI 활용에 따른 업무구조 변화는 저연차 회계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1~2년차 직원의 업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범위는 5~50%로 제시했으며, 직급이 높아질수록 영향은 작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향후 2~3년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연 850~1000명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감사시간과 표준감사시간에 따른 인력 수요, 누적된 수급 불균형, 합격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실무수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서학개미, 반도체 3배 ETF 팔고 또 샀다

해외주식 Click

10월 SOXL 순매수 29억달러 1위
월말 사흘간 9억달러 넘게 순매도


반도체주 급락 국면에서 레버리지 ETF 매매를 두고 고민하는 서학개미를 형상화한 이미지. /ChatGPT 생성 이미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빈도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0월 서학개미 순매수 1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셰어즈'(SOXL)였다. 순매수 결제액은 29억6785만달러로 2위 스페이스X(4억6807만달러)의 6배를 넘었다.

하지만 월말 흐름은 달랐다. SOXL의 누적 순매수액은 21일 이후에도 4억달러 가까이 늘어 27일 38억8746만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8일 35억8925만달러, 29일 33억4812만달러로 줄더니 월말에는 29억6785만달러까지 내려앉았다. 마지막 사흘 새 9억2000만달러가량을 순매도한 셈이다.

매도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11월 들어 3일까지 SOXL 순매수액은 11억4409만달러로 해외 종목 가운데 가장 많았다. 월말 사흘간 내던진 금액보다 많은 돈을 곧바로 다시 쏟아부은 것이다. 최근 1주일(10월28일~11월3일) 기준으로도 2억2448만달러 순매수로 2위에 올랐다.

반도체 급락이 매매를 흔들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0일(현지시간) 하루 7% 넘게 떨어졌다. 인텔이 시장 예상을 밑도는 4분기 전망을 내놓으며 30% 가까이 폭락해 1974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낸 영향이다. SOXL은 이날 24.75% 떨어지는 등 10월 한 달간 50% 가까이 폭락했다. 급락 이후 반등을 노린 저가 매수가 다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AI 매출 성장과 설비투자·현금흐름 간 괴리가 축소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수능 당일 증시 개장·폐장 1시간 순연

코스피·코스닥 오전 10시 개장
정규장 오후 4시30분까지 운영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미운영

한국거래소는 수능 당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의 거래시간을 임시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정규시장 거래시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로 1시간씩 순연된다.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거래시간도 1시간 늦춰진다.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은 기존 오후 3시40분부터 오후 8시까지에서 오후 4시4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된다. 시간외 종가매매는 오후 4시40분부터 5시까지, 시간외 접속매매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장 종료 후 대량·바스켓매매도 오후 4시40분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넥스트레이드도 수능 당일 거래시간을 조정한다.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은 운영하지 않는다. 메인마켓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20분까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20분까지로 운영 시간이 1시간 순연된다. 애프터마켓은 거래 시작 시간이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오후 4시30분으로 늦춰지며, 종료 시간은 오후 8시로 유지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하나증권, 토스뱅크서 연 6% 발행어음 선봬

월 10만~200만원 적립·1000억 한도

하나증권은 토스뱅크 '목돈 굴리기' 서비스를 통해 제휴 전용 적립식 발행어음 상품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토스뱅크 앱에서 월 납입액을 설정하면 자동이체로 적립할 수 있다. 납입액은 월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다.

총 판매 한도는 1000억원이다. 8회 이상 납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등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전 연 6.0% 금리를 적용한다.

상품 출시를 기념한 신규 고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토스뱅크를 통해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개설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국내주식 매수쿠폰 2만5000원을 지급한다. 다음 달에는 한화갤러리아 주식 1주를 추가로 제공한다. 국내주식 매매 수수료 우대 혜택은 이벤트 신청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

/허정윤 기자

해진공, 인도 항만개발 투자 타진… 아시아 물류협력 강화

싱가포르-인도 고위급 대표단 만나
해운·항만·물류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안병길 사장 "현지 진출 다각적 지원"



해양진흥공사와 인도정부 대표단 간 양자면담 모습. /해진공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아시아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해진공은 최근 싱가포르 항만청장, 인도 장관 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해진공은 지난달 26~27일 이틀간 부산에서 아시아지역 주요 해양국인 싱가포르·인도의 고위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해운·항만 협력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26일 싱가포르 해사항만청장 등 대표단과 면담하고, 양국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계획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싱가포르 해사항만청은 해양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현지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에 해진공은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운·물류 거점인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국내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27일 부산에서는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장관 및 고위급 대표단과 만나 해운·항만·물류 인프라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적선사인 HMM 경영진이 함께 참석해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바드반(Vadhvan) 항만 터미널 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 방안을 비롯해 양국 해운사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바드반 항만 개발 사업은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항만 개발 사업 중 하나다. 향후 인도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와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 확장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바드반 항만 터미널 개발 사업에 대한 해진공과 국적선사의 투자·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한국·인도 간 교역 확대에 따른 해상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해상 운송망을 구축하기 위해 선사 간 네트워크 확대, 항로 및 물류 분야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번 논의는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인도의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인도 정부는 국가 경제 성장의 일환으로 '인도 해양 황금기 비전 2047'을 선포하고, 해운·항만·조선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양 인프라 확충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경제성장의 주요 과제로 삼고, 한국의 선진 해운·조선산업 역량을 활용한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한국과는 '항만개발 및 관련 해양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해양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인도는 한국의 선진 해운·조선산업 역량을 활용한 자국 해양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싱가포르와 인도는 글로벌 해운·물류 네트워크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국가로, 우리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라며 "해진공은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aT, 크루즈 선상에 'K-인삼 홍보관' 오픈

홍삼 차·절편 시식, 건강강좌 운영
한국 전통문화 프로그램도 마련



크루즈 선상에서 인삼 홍보하는 모습.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대형 크루즈 선상에서 K-인삼 홍보 행사를 가졌다.

aT는 지난달 하순 한국 여수·제주와 중국 칭다오와 오가는 크루즈 '아이다 지중해호'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산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한·중 노선 크루즈와 연계해 처음 추진된 K-인삼 홍보사업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국 중장년층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산 인삼의 건강한 이미지를 전파하는 동시에 신규 수요 발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가 열린 아이다 지중해호는 최대 268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8만5000톤(t)급 대형 크루즈선이다. 칭다오에서 출발해 한국 여수와 제주를 방문하는 노선으로 운항했다. aT는 10월 20~24일, 24~28일 기간 총 2회에 걸쳐 선상 홍보행사를 진행했다.

aT는 크루즈 내 주요 공용공간에 K-인삼 홍보관을 마련하고 뿌리삼·홍삼농축액·홍삼분말 등 다양한 한국산 인삼제품을 전시했다. 관광객들이 홍삼차와 홍삼절편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음·시식 프로그램도 운영해 한국산 인삼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국 중장년층 관광객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K-인삼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인삼의 건강상 이점과 연령별·대상별 제품 선택 방법 등을 소개했다. 강좌에서는 홍삼 홍보영상 상영과 제품 시음·시식을 병행하고 참가자들에게 홍삼제품을 증정해 한국산 인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

우리 전통문화를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홍삼 캐릭터 포토존을 비롯해 한복 입어보기, 전통부채를 활용한 기념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들이 한국문화와 함께 K-인삼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크루즈 객실 1057개에 홍삼제품 안내 전단지와 체험용 홍삼차 또는 홍삼음료를 비치해, 객실에서도 한국산 인삼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선내 안내방송과 LED 홍보영상, 주요 이동 동선의 홍보물 설치는 물론 중국 여행사의 위챗 공식계정과 샤오홍슈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부산항만公, 글로벌 항만과 AI 혁신 공유

항만 디지털 협의체 총회 참석

부산항만공사(BPA)가 세계 주요 항만들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항만운영 혁신 및 디지털전환 전략 등을 논의했다.

공사는 모로코 탕헤르에서 열린 세계 주요 항만 간 디지털 협의체 '체인포트'(chainPORT)의 제11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30일 탕헤르메드항만공사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세계 각국 항만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기반 운영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항만의 AI 도입과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체인포트란 세계 주요 항만들의 디지털 전환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독일 함부르크항만공사 주도로 설립된 세계 항만 협력체다. 올해 총회에는 부산항을 비롯해 함부르크항, 로테르담항, LA항, 싱가포르항, 바르셀로나항, 앤트워프-브뤼헤항, 예테보리항, 상하이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항만 운영 데이터를 AI와 접목해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AI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APMT(덴마크 머스그룹 계열사)와 엔비디아 등 관련 기업들은 운영 혁신 사례와 기술적 기반을 소개하고, 항만 관계자들과 AI 도입·활용 전략을 논의했다. 부산항만공사는 글로벌사업단장이 토론에 참석해, 항만 안전관리와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AI 활용 사례와 도입 방향을 공유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총회는 부산항의 AI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항만들의 혁신 경험으로부터 항만 운영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이를 부산항의 여건에 맞게 접목해 운영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업 혁신 이끌 신지식농업인 5명 선정

농식품부, 기술로 농업 부가가치 높여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 이른바 '신지식농업인' 5인을 선정·발표했다. 이는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일컫는 용어다.

정부는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해 오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올해까지 누계 503명을 선정했다.

지역별로 경북에서 3명, 경기·경남에서 각각 1명씩 선발했다. 분야별로는 과수·가공 등이며, 올해는 가공·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성과가 나왔다. 청년농 등 젊은 농업인의 활약도 돋보였다.

경기 평택 소재 농업회사법인 아인스의 이진영 대표는 곡물 부산물을 활용한 저당화·발아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 곡물의 기능성을 높이고 생산비 절감과 판매단가 상승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계약재배 확대와 해외 수출을 통해 국내산 곡물 소비량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경북 영천의 영농조합법인 위와이너리의 박진환 대표는 무가당 양조 기술을 개발해, 고품질 와인 생산과 포도의 부가가치 향상을 이뤄 냈다. 와인 체험프로그램 및 관광 연계를 통해 지역 특산물 소비 확대와 농촌융복합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경북 예천 영농조합법인 농부창고의 황영숙 대표는 저온압착 참기름·들기름 제조 기술을 개발해, 유해물질 발생을 줄이고 영양소 보존성을 높였다. 또 지역농가와의 계약수매 및 해외 수출을 통해 국산 참깨 소비 확대 및 지역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경남 거창 농업회사법인 남부파머스의 윤의식 대표는 청년농업인으로 저온농축 공법을 개발해, 초당옥수수의 맛과 영양을 보존하고 상품성을 높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축평원, 한우·계란 등급판정에 AI 활용

농식품 정책콘서트 최우수상 수상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026년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농식품 혁신 정책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며, 현장 투표를 통해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정책의 성과와 가치를 국민에게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지난 4일 개최된 행사에서 축평원은 '등급판정의 눈, AI로 전환하다: AI가 본 축산물 등급, 소비자가 신뢰하는 품질' 사례를 발표했다.

기존 숙련기술 및 전문노하우를 가진 축산물 품질평가사가 수행하던 등급판정 업무에 AI·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혁신 성과다. 대표 사례로 ▲한우 사육, 경험에 '데이터'를 더하다 ▲돼지고기, 내 입맛대로 고르는 맞춤형 소비 ▲정밀한 계란 등급판정과 365일 품질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들 사례는 업무 효율성 개선 및 데이터의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국민식탁 대표 식재료인 소고기·돼지고기·계란 등 우리 축산물에 대해 AI 등급판정을 적용해 품질평가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돼지고기의 경우, AI 장비 도입 과정에서 국산 기술을 활용해 1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란은 AI 품질평가로 최대 64%의 시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인 점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축산유통 현장에서 축산농가·소비자 만족도는 '축산물등급제 정책만족도' 90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증명했다. 정부부처에서 대외 인정을 다수 획득한 점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8평 옥탑방에 모인, 짠하지만 유쾌한 인생들!

오늘도 버틴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뮤직 드라마

망원동 브라더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번엔 진짜 잘될 거야!

예매하기

티격태격하다가, 어느새 식구가 된다!

2026.10.09 ~ 2027.01.31 | 대학로 루미나아트홀

“모평 대비 수능등급 상승률 10% 이상… 실전 감각 키워야”

진학사, 지난해 수험생 성적 분석
재학생이 졸업생보다 변화 폭 커
“자신의 가능성 제한할 필요 없어”

현행 체제 마지막 수능에 N수생이 몰리며 고3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9월 모의평가 대비 수능에서 등급이 상승한 비율은 재학생이 졸업생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업계는 수시 마무리 후 학습 몰입도가 높아지는 만큼, 남은 2주간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다면 고3의 막판 반등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5일 입시정보업체 진학사가 2026학년도 수험생 2만4731명(재학생 1만6977명·졸업생 7754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9월 모평대비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 평균등급이 오른 비율은 재학생이 16.9%로 졸업생(9.8%)보다 7.1%포인트(p) 높았다. 등급이 유지된 비율도 재학생은 49.8%로 졸업생(44.8%)보다 높았으며, 등급이 하락한 비율은 재학생 33.2%, 졸업생 45.4%로 집계됐다.

〈2026학년도 9월 모평 대비 수능 등급 변화 비교〉 /진학사

영역	재학생 등급 변화			졸업생 등급 변화			등급상승비율차이(재학생·졸업생)
	상승	유지	하락	상승	유지	하락	
국어	22.20%	36.50%	41.30%	15.60%	34.20%	50.10%	6.6%p
수학	24.30%	43.30%	32.40%	17.90%	40.50%	41.60%	6.4%p
영어	16.10%	43.90%	40.00%	12.70%	39.90%	47.40%	3.4%p
탐구	25.00%	35.70%	39.30%	15.80%	34.50%	49.70%	9.2%p
국수탐 평균등급	16.90%	49.80%	33.20%	9.80%	44.80%	45.40%	7.1%p

※ 대상은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성적을 모두 진학닷컴에 입력한 수험생(재학생 16,977명, 졸업생 7,754명)
※ 탐구는 2과목 평균등급을 적용했으며, 국·수·탐 평균등급은 국어·수학·탐구(2과목 평균) 등급을 평균해 산출함.
※ 반올림으로 합계가 100%와 다를 수 있음.

주요 과목 전반에서 재학생의 등급 상승 비율이 졸업생을 웃돌았다. 탐구 2과목 평균등급을 기준으로, 재학생의 25.0%가 9월 모평보다 수능에서 등급을 올렸다. 졸업생은 15.8%로 9.2%p 격차를 보였다. 국어는 재학생 22.2%, 졸업생 15.6%, 수학은 재학생 24.3%, 졸업생 17.9%로 나타났다. 절대평가인 영어 역시 재학생의 상승 비율이 16.1%로 졸업생(12.7%)보다 3.4%p 높았다.

같은 등급을 받은 수험생끼리 비교한 결과도 비슷했다. 9월 모평 등급별로 실제 수능에서 한 등급 이상 상승한 비율을 비교한 결과, 국어·수학·영어 2~4등급 구간에서 모두 재학생이 졸업생을 앞섰다. 단순히 두 집단의 전체 성적 분포가 달라 나타난 결과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수학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9월 모평 3등급을 받은 재학생 중 수능에서 등급이 상승한 비율은 28.7%로 졸업생(23.0%)보다 5.7%p 높았다. 4등급에서도 재학생은 34.2%, 졸업생은 28.8%로 5.4%p 차이를 보였다. 수학 2등급에서도 재학생의 상승 비율이 18.3%로 졸업생(16.7%)과 1.6%p 차이가 났다.

국어 역시 2등급은 재학생(19.7%)이 졸업생(15.7%)을 웃돌았다. 3등급과 4등급에서도 재학생의 상승 비율이 각각 23.1%, 28.8%로 졸업생(19.2%, 25.0%)을 앞섰다.

고3 재학생의 성적이 반등한 배경으로는 9월 모평 이후 달라지는 수험 환경이 꼽힌다. 진학사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수시 원서접수를 마친 고3 재학생은 수능 공부에 집중할 여건이 커지는 반면, 졸업생은 상대적으로 학습 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N수생의 강세가 곧 재학생의 성적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남은 기간 자신의 가능성을 미리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수능까지 남은 2주 동안은 기존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소장은 “반복해서 틀리는 유형과 시간 관리 문제를 점검하고, 실제 수능 시간표에 맞춰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상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의 대응 방법도 미리 연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교부금 개편 시각차 여전… “교부금 늘 것”〈교육부〉 vs “재원 부족”〈시·도 교육감〉

교육감協 “내국세 연동제 유지”
교육부 “학생 수 변화 등 고려”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감들은 학교의 필수 교육 수요를 감당할 재원이 부족하다며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는 대안을 내놨다. 반면 교육부는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이 증가한다며, 개편으로 마련한 재원은 재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 강은희(대구), 권순기(경남), 김석준(부산), 윤건영(충북), 임종식(경북), 조용식(울산)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와 나누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했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연동률은 유지하되, 세수가 크게 늘거나 줄 때 국가가 일부 재원을 분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내국세가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교부금의 5% 초과 증가분 중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5% 넘게 감소하면 교부금의 5% 초과 감소분 중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약 89조6000억원으로, 시·도 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4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연동 방식만 폐지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세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교부금 정산분 11조7000억원이 개편 과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에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정액이든 정률이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부금 개편이 교육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26~2030년 교부금이 정부 중기계획 기준으로 연평균 6.6% 늘어, 기존 중기계획(4.4%)보다 증가세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향후 10년간 학령인구가 약 192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 수 변화와 함께 교부금 증가 추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련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에 적립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임시형 국민대 교수 ‘기계의 날’ 장관 표창



국민대학교 임시형 교수(사진)가 극한환경에 투입되는 로봇 분야에서 거둔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민대는 기계공학부 임시형 교수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6 기계의 날’ 행사에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임 교수는 마이크로·나노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표면과 초소형 센서 연구를 통해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 교수는 “산·학·연 협력을 확대해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극한환경 로봇에 적용할 기능성 표면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초감각 센서의 기초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8014억 편성

올해 본예산 대비 7.9% 증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학생 마음건강과 기초학력 지원, 인공지능(AI) 교육, 노후 학교 공간 개선 등을 담았다. 전체 예산안은 11조8014억원 규모로, 학생 안전과 학교 현장 지원부터 미래교육 기반 조성까지 주요 교육사업에 재원을 배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1조8014억원을 편성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11조9422억원보다 8592억원(7.9%) 늘었지만, 최종예산 12조8665억원과 비교하면 1조651억원(8.3%) 줄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 총 1조607억원을 책정했다. 학생 마음건강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4605억원, 기초학력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에 1784억원, 진로·체험 활동과 미래교육 기반 마련에 4218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AI·디지털 교육 분야는 모두 740억원으로, AI·디지털교육 지원에 567억원, 디지털 학습 인프라 구축에 173억원을 배정했다. 다만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인 ‘디벗’ 교체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학교 공간 개선과 유휴시설 활용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노후 학교를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에 2875억원, 에너지 자립형 생태전환학교인 ‘햇빛이음학교’ 조성에는 37억원을 책정했다. 폐교를 활용한 시니어 평생교육시설 ‘슬로우캠퍼스’ 조성에도 32억원을 지원한다.

예산안은 다음 달 23일까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서울교육청, 학교 재난 피해보상 강화

내년 교육시설공제 운영계획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재난 피해 보상과 행정 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도 교육시설공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학교의 재난 피해 보상과 복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교육시설공제는 학교 시설과 물품 등에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서울 지역 학교가 신청한 재난 피해 공제 급여는 약 165억600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약 102억4000만원으로 신청액의 61.8% 수준이었다. 학교 업무 담당자 설문에서는 68.9%가 공제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개선안은 가입 정보와 실제 학교의 자산 현황이 일치하지 않거나 보상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물품 가입 기준은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300만원 미만 물품에는 포괄 특별담보를 적용해 가입하지 않은 물품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난이 발생한 피해 학교에는 단계별 지원을 진행한다. 사고 초기에는 공제 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 준비 단계에서는 피해 내역과 증빙자료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보상 과정에서는 복구비 산정과 지급액 감액 사유 확인 등을 지원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본청이 가입 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 매뉴얼 개선에 반영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인하대, 전공박람회 성료

인하대는 지난 3~4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60주년기념관에서 ‘2026 전공박람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전공디자인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학생이 여러 전공을 살펴보고 적성과 진로에 맞춰 학업 계획을 짜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일반 학과를 비롯해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의 특성과 교육과정, 졸업 후 진출 분야 등을 소개했다.

학생들은 여러 전공의 수업 내용과 진로 방향을 비교하며 관심 분야를 탐색했다.

인하대 전공디자인센터는 박람회 이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 상담 신청을 받는다. 학생들이 전공 선택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학업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상시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이커머스, 연중 최대 쇼핑대전… 할인은 기본, AI '플러스'

쿠팡, 와우회원 37만개 상품 할인
11번가, '그랜드십일절' AI 차별화
롯데온, 특가상품·브랜드별 기획전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11월을 맞아 이커머스 업계가 일제히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주요 업체들은 대규모 할인과 한정 특가 상품을 앞세우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상품 추천과 멤버십 혜택, 오프라인 체험 등으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5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쿠팡, G마켓, 11번가, 컬리, 롯데온,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플랫폼이 이달 초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1월 쇼핑 경쟁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할인 상품의 규모뿐 아니라 고객을 확보하는 방식도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주요 플랫폼들은 단순 가격 인하를 넘어 AI로 쇼핑 경험을 개선하고 멤버십 전용 혜택 등을 결합해 소비자들의 반복 방문과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상품 탐색과 추천 기능이 새로운 경쟁 요소로 떠올랐다. 11번가와 G마켓은 각각 AI 기반 상품 추천과 특가 상품 선별 시스템을 도입했다.

멤버십을 활용한 고객 확보 경쟁도 두드러진다. 쿠팡과 컬리는 회원 전용 할인 혜택을 강화해 기존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11번가는 무료 멤버십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롯데온은 신규 고객 쿠폰과 앱 구매 적립 혜택을 통해 고객 유입 확대를 꾀하고 있다.

쿠팡은 8일까지 와우회원 대상 할인 행사인 '와우 멤버스데이'를 개최한다. 식품과 생활용품, 가전·디지털, 뷰티, 패션 등 16개 카테고리에서 37만개 이상의 상품을 최대 70% 할인한다. 로켓프레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연계하고, 매일 새로운 상품을 공개하는 '골드박스 특가'와 '타임할인 특가'도 운영한다. 와우회원에게는 매일 두 차례 선착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쿠팡은 오는 8일까지 '와우 멤버스 데이'를 진행한다. /쿠팡



11번가는 오는 11일까지 '2026 그랜드십일절'을 진행한다. /11번가



롯데온 '블랙온세일' 이미지. /롯데온

G마켓은 13일까지 '빅스마일데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AI 기반 특가 상품 선별 시스템을 처음 도입해 특가 상품 규모를 기존 1000여개에서 3000여개로 확대했다. 상품 리뷰와 구매 실적, 계절별 수요 등을 AI로 분석하고 상품기획자(MD)가 신제품과 단독 기획 상품을 추가로 선별하는 방식이다. 매일 자정 공개하는 단독 특가 상품과 시간 한정 할인, 라이브 방송 등도 운영한다.

11번가는 11일까지 '2026 그랜드십일절'을 진행한다. 국내외 180여개 브랜드와 8200여곳의 판매자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AI 쇼핑 기능을 전면에 내세웠다. 최근 1년간 주문이 많았던 인기 상품 약 1000개의 핵심 구매 정보를 AI로 분석해 제공하고, 개인별 관심 상품을 예측하는 초개인화 추천 서비스 'Ai홈'도 모바일 첫 화면에 배치했다. 행사 첫날 Ai홈 경유 거래액은 지난달 일평균 대비 255% 증가했다.

컬리는 이달 9일까지 연중 최대 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위크'를 진행한다. 식품부터 뷰티·리빙까지 2000여개 상품을 할인 판매하며 자체 단독 상품인 '컬리온리' 상품을 중심으로 특가 행사를 마련했다. 멤버십 회원에게는 별도 할인 상품을 제공하고, 매일 오전 11시부터 24시간 동안 제철 과일과 신선식품 등을 할인하는 '메가블랙딜'도 운영한다.

롯데온은 8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 기념 행사 '블랙온세일'을 진행한다. 패션·뷰티부터 디지털·리빙까지 다양한 상품을 대상으로 최대 20% 할인 쿠폰과 중복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첫 구매 고객에게 별도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앱 신규 고객에게 엘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신규 고객 확보에 무게를 뒀다. 매일 새로운 한정 수량 특가 상품과 브랜드별 기획전도 선보인다.

알리익스프레스는 18일까지 '11.11 광군제' 행사를 진행한다. 전 카테고리에서 최대 8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브랜드 특가, 레저·차량용품, 홈리빙 등 테마별 기획전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홍대에서 '굼이' 만나보세요"

KT&G 상상마당 '윗 굼이' 기획전
구미 로컬 브랜드·문화 콘텐츠 소개

KT&G 상상마당이 경북 구미시의 로컬 크리에이터 캐릭터 '굼이(GOOMI)'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 기획전 '윗 굼이(WITH. GOOMI)'를 오는 15일까지 상상마당 홍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굼이'는 구미 금오산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구미시의 로컬크리에이터 캐릭터다. 지역 자원과 소상공인의 상품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 고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굼이'를 중심으로 구미시의 다양한 로컬 브랜드와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다. 구미 지역 브랜드 12개사가 참여해 총 172종의 굿즈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이 지역 브랜드의 개성과 구미시만의 문화적 매력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KT&G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개성 있는 로컬 브랜드와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함께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상상마당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창작자와 브랜드를 발굴하고, 대중과 예술·문화가 만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ITH. GOOMI' 포스터. /KT&G 상상마당

/신원선 기자 tree6834@

삼립, '삼립호빵' 편의점 채널 매출 44% ↑

광고 캠페인·제품 경쟁력 등 복합 작용

삼립의 겨울철 대표 제품 '삼립호빵'이 본격적인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삼립호빵은 올 시즌 출시 이후 첫 3주간 편의점 채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4%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기간 호빵 전 채널 매출도 약 20% 늘어나며 겨울 시즌 초반부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매출 성장에는 광고 캠페인 흥행과 SNS를 통한 자발적인 입소문 확산, 제품 경쟁력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배우 공명을 신규 모델로 발탁해 선보인 광고 캠페인은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다. 여기에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에서 시작된 '호빵 맛있게 찌는 법' 관련 게시물이 인스타그램 릴스 등 주요 숏폼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삼립호빵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였다.

제품 경쟁력 강화도 매출 성장에 힘을 보탰다. 삼립은 올 시즌 단팥·야채·피자·고구마·김치 등 기존 스테디셀러의 풍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새롭게 개발한 독자적인 제빵 기술을 적용해 호빵 피의 부드러운 식감을 더욱 살렸다.

삼립은 이번달 멕시칸 타코를 재해석한 '타코 호빵'을 비롯해 감주 탕종 반죽으로 쫄깃한 식감을 살린 '감주통팥 호빵', 오키나와 흑당의 깊은 풍미를 담은 '흑당단팥 호빵'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삼립 관계자는 "차별화된 제품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겨울철 호빵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GS25 '혜자로운' 브랜드 리뉴얼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혜자로운'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혜자로운'은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내세운 GS25의 간편식 브랜드다. 이번 리뉴얼의 가장 큰 변화는 패키지 디자인이다. '혜자로운'이라는 브랜드명을 전면에 크게 배치한 타이포그래피 중심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전용 폰트 'GS혜자로운체'를 새롭게 개발했으며, 리듬감 있는 획과 친근한 글자 형태, 부드러운 곡선을 활용했다.

GS25는 20대 소비자를 겨냥한 상품과 마케팅 캠페인도 선보인다. 5일 출시하는 '혜자로운 미니쿠키'를 시작으로 디저트 상품군을 확대하고, 한국인의 밥심을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확장하는 '혜자로운 K-BAP 유니버스의 시작' 캠페인도 전개한다. /김서현 기자

더본코리아, TBK 소스·한식 솔루션 소개

푸드위크 코리아

'SCAN & COOK' 콘셉트 부스 운영

더본코리아가 오는 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제21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해 글로벌 소스 브랜드 'TBK(THEBORN KOREA)'의 다양한 제품과 한식 조리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푸드위크 코리아는 국내외 식품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비롯해 식품 제조·유통, 외식 솔루션, 푸드테크 기술 등을 소개하는 종합 식품 전시회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SCAN & COOK'을 콘셉트로 별도의 TBK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현장에서는 김치양념분말과 양념치킨소스, 갈비양념소스 등 총 11종의 TBK 소스를 소개하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한국 음식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보인다.

특히 부스 내 조리 및 시식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TBK 소스를 활용한 한식 메뉴를 직접 확인하고 맛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원선 기자

NS홈쇼핑, 김장상품 온·오프라인 판매 확대

18일까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연계

NS홈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손잡고 5일부터 18일까지 김장철 온·오프라인 연계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 전단에서 '콜마트' 서비스를 통해 NS홈쇼핑 온라인몰의 김장 상품을 소개하고, 소비자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주문해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오프라인 매장의 소비자 접점과 NS홈쇼핑의 상품·주문·배송 서비스를 연결해 김장철 장보기 편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콜마트'는 NS몰의 온라인 상품 중 계절과 소비 수요에 맞춰 선정한 일부 상품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과 달리 상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전단 '콜마트' 서비스 이미지. /NS홈쇼핑

검색이나 복잡한 주문 절차 없이 상담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어 온라인 주문이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계판매에서는 김장 식재료 4종을 주요 상품으로 선보인다. 주요 상품은 해남 절임배추 20kg, 강원도 절임배추 20kg, 2026년산 경북 청결 고춧가루 2kg, 2026년산 신안 육형제 소금밭 천일염 20kg이다. /김서현 기자

CU 생딸기 샌드위치 3종 출시

CU는 우유 휩 크림을 활용한 '생딸기 휩 크림 샌드위치' 3종을 이달 6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신제품은 빵 사이에 생딸기를 비롯한 과일을 큼직하게 넣어 과일의 맛과 단면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딸기 초코 휩 카스텔라 샌드'는 초코 카스텔라 사이에 초코 휩 크림, 초코칩과 생딸기를 넣은 상품이다.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자체 커머스앱 포켓CU에서 하루 500개 한정 수량을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이어 이달 18일에는 '후르츠 우유 휩 샌드'를 선보인다. 해당 상품은 딸기, 오렌지, 샤인머스캣을 각각 넣은 제품이다. 내달 중에는 생딸기와 우유 휩 크림을 넣은 '딸기 우유 휩 샌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동물실험 대체 기술로 中 시장 공략

중국 '헬스케어 서밋 2026' 참가
오가노이드 치료제 확장 가능성 제시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협력 모색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2~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바이오센추리-베이헬릭스 차이나 헬스케어 서밋(BioCentury-BayHelix China Healthcare Summit) 2026'에 참가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사업 비전과 차세대 신약개발 평가 기술을 소개하고,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바이오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이경진 CTO가 'BioCentury China Healthcare Summit 2026'에서 오가노이드 기술과 NAMs 시대의 신약개발 활용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글로벌 바이오 전문매체 바이오센추리와 바이오산업 리더 네트워크 베이헬릭스가 공동 주최하고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 & Company)가 참여했다. 중국·미국·유럽·아시아의 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창업자, 다국적 제약사 사업개발(BD) 책임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모여 기술이전, 공동개발, 투자 및 사업화 전략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파트너링 행사로 꼽힌다.

올해는 중국 바이오산업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시장 내 역할 확대가 핵심 화두였다. 중국산 신약 후보물질의 해외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 글로벌 제약사의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에셋 소싱), 공동개발 및 투자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경진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3일 기업 발표 세션에 연사로 나서 회사의 글로벌 성장 전략과 함께, 새로운 접근법(NAMs·New Approach Methodologies) 시대에 오가노이드 기술이 신약개발 산업에서 맡을 역할을 설명했다.

발표의 핵심은 동물실험 중심의 기존 평가 방식을 넘어, 인체 유래 오가노이드로 후보물질의 효능과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는 접근법이었다. 이 CTO는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개발 평가 플랫폼 'ODISEI'를 중심으로 항암제 효능 평가, 독성 예측, 환자 유래 질환 모델 구축 등 활용 사례를 제시하며 인체 관련성이 높은 평가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플랫폼 '아톰(ATORM)'의 개발 현황과 글로벌 임상개발 전략도 함께 공개하며 오가노이드를 신약개발 지원용 평가 도구에 그치지 않고 차세대 재생의료 치료제로까지 확장하고 할 수 있다고 비전을 보였다.

이경진 CTO는 본 행사에 앞서 1일 쑤저우에서 열린 사전 네트워킹 프로그램에도 참석해 글로벌 바이오기업 CEO 및 창업자들과 중국 바이오산업의 성장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 기간 회사는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과 별도 미팅을 갖고 오디세이(ODISEI) 플랫폼을 활용한 후보물질 효능·독성 평가 및 공동연구 가능성도 타진했다. 중국 바이오기업이 보유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과 자사 오가노이드 평가 기술을 연계해, 글로벌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관계자는 "중국 바이오산업은 글로벌 신약개발과 기술이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유망 후보물질 발굴만큼이나 그 가치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기술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NAMs 시대에 오가노이드는 신약개발의 효율성과 예측력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바이오기업들과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광동제약, '장원환' 과학적 효능 규명

국제학술지 '파마슈티컬스'에 게재
기억 형성 관여하는 단백질 발현 증가

광동제약은 경희대학교 약학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한방 처방 '장원환'의 기억력 개선 효과와 작용기전에 관한 연구 논문이 SCIE 등재 국제학술지 '파마슈티컬스(Pharmaceuticals)'에 게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동의보감에 수록된 '장원환'의 기억력 개선 효과와 약리학적 작용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문헌에는 장원환에 대해 '하루에 천 마디 말을 외우고 가슴에 만 권의 책을 간직할 수 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연구진은 정상 생쥐와 스코폴라민을 투여해 기억력 손상을 유도한 생쥐에 장원환을 각각 28일, 14일간 투여한 뒤 기억력 변화와 뇌 신경세포 활성 등을 분석했다.

실험 결과, 정상 생쥐와 기억력 손상 생쥐 모두에서 기억력 관련 행동 수행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과 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시냅스 가소성 관련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했으며, 뇌의 해마에서 신경세포 활성화와 콜린성 신호 전달이 강화되는 양상이 관찰됐다.

연구 결과가 게재된 '파마슈티컬스'는 의약품의 약리작용과 신약 개발 등을 다루는 국제학술지다. 2025년 기준 피인용지수(IF)는 5.7이며, 약리학·약학 분야 상위 25%에 해당하는 Q1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전통 한방 처방의 약리학적 특성을 현대 과학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천연물과 생약 분야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전통 의약품의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지난 4월 동의보감에 수록된 장원환 처방을 기반으로 개발한 일반의약품 '기어케어정'을 출시했다. 총명탕의 주요 구성 생약으로 알려진 원지, 석창포, 복신 등을 포함해 총 11종의 한약성분을 함유한 제품으로, 기억력 감퇴와 건망증 개선 및 신경안정에 효능·효과가 있다.

/이세경 기자

SK바이오팜, 3분기 영업익 첫 1000억 돌파

매출 2584억, 영업익 1163억

SK바이오팜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584억원, 영업이익 1163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5.9% 늘어난 수치다.

분기 영업이익은 일회성 용역수익이 반영된 분기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3031억원으로 3000억원을 돌파했다.

회사측은 이번 실적이 전분기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달성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세노바메이트의 원화 환산 매출은 환율 영향을 받았지만 달러 기준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환율 하락 등에 따른 판매관리비 감소와 용역수익 증가도 영업이익 개선에 기여했다.

3분기 기타매출은 348억원으로, 완제의약품·원료의약품(DP/API) 매출 59억원과 용역수익 289억원으로 구성됐다. 용역수익에는 로열티 수입 외에 아시아 임상 관련 진행매출과 마일스톤 수익 등이 포함된다. 3분기 누적 기타매출은 약 880억원으로, 연간 기타매출 가이던스 1100억원을 유지했다.

3분기 판매관리비는 1331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1억원 감소했으며, 누적 판매관리비는 연간 가이던스 5700억원의 약 69%인 3922억원을 기록했다.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3분기 미국 매출은 1억5681만달러, 원화 기준 2236억원을 기록했다. 달러 기준으로는 전분기 대비 4.9%,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한 규모다. 환율 하락으로 원화 기준 매출은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9% 늘었다.

/이세경 기자

알에프바이오, 가톨릭대와 재생소재 개발

미토콘드리아 기반 차세대 소재 연구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알에프바이오가 가톨릭대학교와 차세대 재생 바이오소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알에프바이오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조미라 교수와 '미토콘드리아 대사 조절 기반 차세대 생체재생 적합성 바이오소재 개발 기술에 관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알에프바이오 전신수 회장(가운데), 조재규 대표(왼쪽)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토콘드리아 면역의학 연구센터 (MIGHT) 조미라 교수가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알에프바이오의 바이오소재 연구개발 및 제품화 역량과 조미라 교수의 의생명과학 분야 연구 전문성을 연계해 차세대 재생 바이오소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측은 미토콘드리아 대사 조절을 기반으로 생체재생 적합성을 고려한 차세대 바이오소재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재생 바이오소재의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의료미용 분야로의 응용 가능성을 모색할 방침이다.

알에프바이오는 기존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세포 대사 및 조직 재생과 연계된 차세대 바이오소재 원천기술 확보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술적 성과를 토대로 향후 차별화된 재생 바이오소재 개발과 신규 제품 파이프라인 확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애경산업

시그닉 모델에 키키 지유

애경산업이 스킨케어 브랜드 '시그닉' 새 브랜드 모델 '지유'와 함께 국내부터 향후 일본 시장 진출까지 브랜드를 확산하는 마케팅에 착수한다. 지유는 K팝 걸그룹 키키 멤버다.

애경산업은 시그닉이 추구하는 '확실한 효능과 감각적인 즐거움'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에 지유의 맑고 건강한 이미지가 부합해 전속 모델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그닉은 피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품력은 물론 매일 손이 가는 디자인과 제형을 갖췄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지씨씨엘, 한미약품 비만 신약 개발 뒷받침

임상 3상 통합 분석 성공

글로벌 임상시험 검체분석 기관 지씨씨엘이 첫 국산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3상 통합 분석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대규모·고난도 비만·대사질환 임상시험 수탁(CRO) 역량을 입증했다.

지씨씨엘은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국산 비만 신약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시험에 약동학(PK) 분석 및 센트럴랩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 성과에 함께했다고 5일 밝혔다.

에페는 한미약품이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개발 및 상용화까지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국내 첫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약물이다.

지씨씨엘은 에페의 국내 임상 3상에 참여해 약 30개 임상기관에서 수집한 검체의 수거, 운송, 보관 및 분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 약물의 체내 농도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평가하는 약동학 분석을 비롯해 주요 임상검사 데이터 구축을 수행했다.

특히 지씨씨엘은 대규모 다기관 임상시험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도와 재현성이 요구되는 약동학 분석 및 임상검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해 한미약품의 신약 개발을 뒷받침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비만·대사질환 분야의 임상시험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조관구 지씨씨엘 대표는 "한미약품이 국내 기술력으로 이뤄낸 첫 비만 신약 개발이라는 뜻깊은 성과에 임상시험 분석 파트너로 함께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씨씨엘이 보유한 전문 분석 역량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성과가 성공적인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2026년 11월 18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주 제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일 시 2026년 11월 18일(수) 14:00~17: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연사 소개



이경전
-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AI서비스학회장



김지섭
-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한영섭
- LG유플러스 AI R&D랩장



박기철
-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현창호
-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우용** 한국SW · ICT총연합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50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AI서비스학회장 : 업종별 AI/로봇 활용 방안과 전망
강연	14:50~15:20	**김지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 AI 전환의 허와 실
	15:20~15:50	**한영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 : AI가 이끄는 기술/산업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AX)
	15:50~16:20	**박기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 산업현장 AI적용사례와 변화 트랜드
	16:20~16:50	**현창호**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팀장 :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서의 AX의 역할과 의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 metro경제

LG, AI로 산업안전 혁신… 예방·관리 자동화 속도

16개 계열사 참여 'LG SHEC' 개최
혁신 사례 21건 중 15건 AI 활용
위험 감지부터 대응까지 자동화


4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그룹 안전환경 콘퍼런스 'LG SHEC'에서 LG 안전환경 담당자가 협력사 관계자로부터 AI 기반 중장비 협착 방지 경보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LG

LG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현장 안전관리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험 감지와 사후 대응에 머물렀던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AI 기반 실시간 예방과 자동화 중심으로 전환하고있다.

특히 계열사별 안전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LG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그룹 차원의 안전보건환경 콘퍼런스인 'LG SHEC(LG Safety Health Environment Conference)'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LG와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등 16개 계열사 안전환경 담당자 35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과 중국, 인도, 폴란드 등 해외 사업장 담당자 20명도 현장을 찾았다.

'드라이브 더 시프트'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AI 전환(AX)과 로봇 전환(RX)에 맞춰 안전환경 관리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 공유된 21건의 혁신 사례 가운데 15건이 AI를 활용하면서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 전반으로 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LG전자는 국내 사업장과 시공 현장에 설치된 CCTV 4226대를 자체 개발한 AI 솔루션으로 연결한 통합 관제시스템을 소개했다. AI가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설비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입을 차단하고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방식이다.

LG디스플레이는 작업 영상을 분석해 근골격계 부담을 평가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작업자의 허리와 어깨 자세 등을 분석해 위험도를 판정하고 개선 방안까지 제시한다. 기존 30분가량 걸리던 평가 시간을 6분으로 단축했다.

LG화학은 공정안전관리(PSM)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했다. 설비 변경과 점검 등 9개 분야의 관련 서류를 대조해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서류 검토 시간을 98% 줄였다. LG유플러스도 협력사 작업자가 위험 요인과 감소 대책을 손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AI 기반 위험성 평가 앱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김대식 KAIST 교수 등이 AI·로봇 기술 변화부터 산업안전 정책, 임직원 정신건강까지 다양한 주제로 강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교원라이프, 상조 서비스품질지수 초대 1위

교원라이프가 한국표준협회(KSA) 주관 '2026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조사에서 상조 부문 초대 1위에 선정됐다. 5일 교원라이프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실시된 상조 부문 조사에서 전 평가 항목에 걸쳐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점수를 획득하며 종합 1위에 올랐다. 비스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교원라이프



두산연강재단, 환경학술상 장암·김형일 교수

두산연강재단이 환경 분야의 우수 연구자를 선정해 학술상을 수여하고 폐수 처리와 폐플라스틱 자원화 등 환경기술 연구 성과를 알렸다. 두산연강재단은 지난 4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대회에서 '2026 두산연강환경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성균관대학교 장암 교수와 연세대학교 김형일 교수에게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두산연강재단



캠코 등 6개 공공기관, 내부통제 강화 맞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6개 금융공공기관이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캠코는 지난 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내부통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기관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캠코



소공연, 소상공인 나눔봉사단 출범

소상공인연합회가 우리금융그룹,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우리 소상공인 나눔봉사단' 제1기를 출범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상생 실천에 본격 나섰다. 5일 소공연에 따르면 이번 나눔봉사단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업종별 전문 기술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지속가능한 민간 협력형 봉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호반건설, 동절기 화재·추락 사고 예방

광주 첨단3지구 합동안전점검 실시

호반건설이 겨울철 화재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호반건설은 지난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월출동 '호반써밋 첨단3지구' A7블록 현장에서 동절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변부섭 건설안전부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협력사 4곳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작업구간의 안전시설과 작업환경을 살폈다. 소방시설과 한파에 대비한 근로자 건강관리, 추락·미끄러짐 방지 조치 등을 확인했다.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들은 현장 근로자와 협력사 관계자들에게 작업 중 위험요인과 안전관리의 어려움을 들은 뒤 안전수칙 준수를 다짐하는 캠페인도 펼쳤다. 호반건설은 동절기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영진의 현장 점검과 정기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성채리 기자 cr56@

대한항공, 美 항공 서비스 평가 3관왕

비즈니스·일등석 등 3개 부문 1위
주요 부문 동시 석권은 이번이 처음
좌석·기내식 고급화로 경쟁력 강화

대한항공이 글로벌 시장에서 항공기 고품격 서비스를 인정 받았다. 대한항공은 미국 종합일간지 USA투데이가 주관하는 '2026년 10베스트 리더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3관왕에 올랐다고 5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비즈니스·일등석, 기내식, 객실승무원 등 3개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항공사 관련 주요 부문에서 모두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SA투데이는 매년 항공, 공항, 숙박, 여행 등 분야별로 전문가 패널이 선정한 후보를 대상으로 독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상위 10개 기업의 순위를 발표한다.

대한항공은 비즈니스·일등석의 좌석과 기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했다. 비즈니스석인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은 좌석 등받이를 180도로 눕혀 침대처럼 사용할 수 있다.

상위 클래스 기내식은 고급 코스 요리를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일등석 실내복과 침구는 해외 럭셔리 브랜드 협업 제품을 사용한다. 기내식은 한국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도입하고 사전 주문 서비스도 운영한다. 일반석 장거리 노선의 간식 종류도 다양화했다.

/양성운 기자

예탁결제원, 글로벌 LEI 최우수 기관 선정

글로벌LEI재단 소형 기관 부문 수상

한국예탁결제원이 글로벌LEI재단(GLEIF)의 법인식별기호(LEI) 발급·관리기관 평가에서 소형 기관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LEI 시스템(GLEIS) 포럼 시상식'에서 '2026년 올해의 최우수 지역운영기구(LOU)'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LEI는 금융거래 등에 참여하는 법인을 식별하기 위한 국제표준 코드다. 지역운영기구는 LEI를 발급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예탁결제원은 데이터 품질과 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글로벌LEI재단은 2023년부터 매년 전 세계 지역운영기구를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과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최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40개 기관을 관리 규모에 따라 대형 14개, 중형 12개, 소형 14개로 구분했다. 예탁결제원은 LEI 관리 건수가 5000개 미만인 소형 기관 부문에서 수상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발전 유공자 포상

제주서 노란우산 발전 워크숍 개최
금융기관 직원 25명에 장관 표창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가입 확대와 제도 발전에 기여한 금융기관 유공자 등을 포상했다.

중기중앙회는 4~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2026 노란우산 발전 유공자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행사에는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의 노란우산 담당 직원 190여 명이 참석했다.

2026 노란우산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노란우산 가입 유치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 직원 25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전수했다.

이어진 워크숍에선 노란우산 제도개선 현황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금융기관별 고객 응대 우수사례와 영업 노하우를 소개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이 재적가입자 192만명의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준 금융기관 직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통해 경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안전망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소기업중앙회는 4~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2026 노란우산 발전 유공자 워크숍'을 열고 노란우산 가입 등에 힘쓴 금융기관 관계자 25명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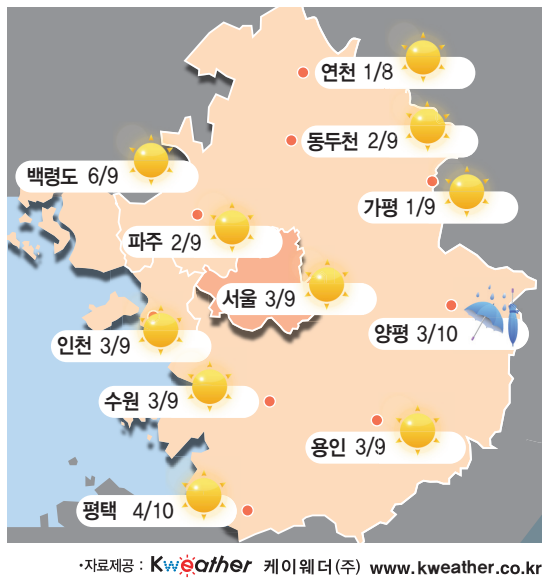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02 | 해짐 / 17:29

11월 6일 (금)
음력 : 9월 27일

수도권 날씨
3 ~ 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 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교통본부장 이경훈 △검사본부장 박금구

부 음 ▲박순돌(향년 79세)씨 별세, 김진수(강원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씨 모친상, 임정진(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씨 시모상 = 5일,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302호, 발인 7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33-261-4441

www.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뉴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시스와 손을 잡고 뉴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시스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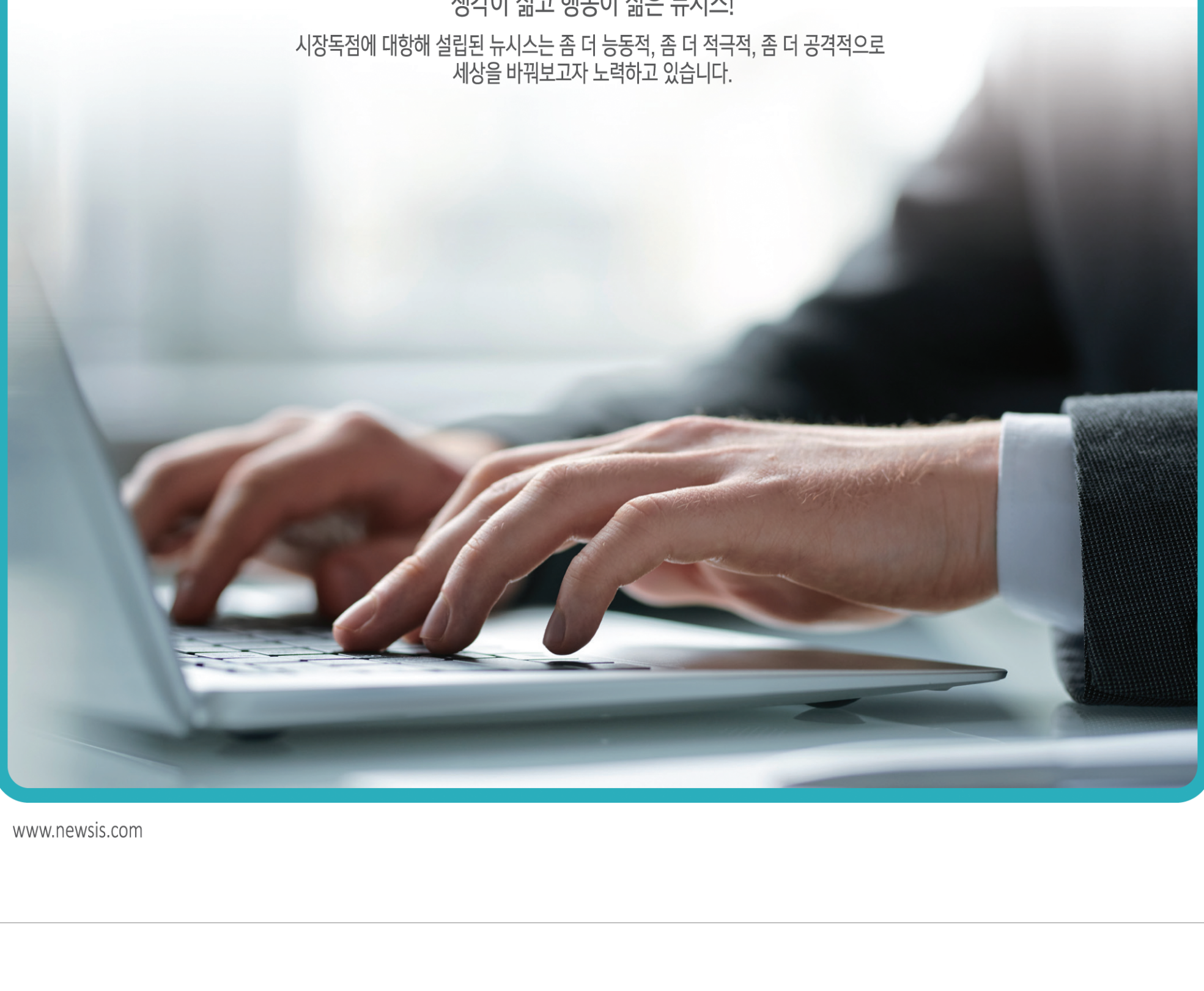
출고기사. 1500여개

사진기사. 1500여개

뉴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시스!

시장독점에 대항해 설립된 뉴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newsis.com

보안 불감증과 금융권 해킹 사고



이 정 희의
西村브리핑

금융권이 연쇄 해킹 공포에 휩싸였다. 은행에서 시작된 사이버 공격이 증권·보험·자산운용사는 물론 가상 자산업계까지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양증권에서도 고객과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긴급 보안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고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금융산업의 근간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치부할 수 없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재산과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췄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외부 시스템의 취약점까지 침투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은 기존 보안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문제는 금융권의 안일한 보안 의식이다. 금융당국은 사고 발생 이전부터 보안 취약점 개선과 외부 접점 관리를 주문해 왔다. 그러나 금융회사 5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점검에서 130곳의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최신 보안 패치 미적용과 노후 시스템 관리 부실, 24시간 보안 관제 체계 미구축 등 기본적인 문제들이었다. 첨단 금융서비스 경쟁에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보안의 기초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격 대상이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외부 그룹웨어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다양한 연결망이 새로운 침투 경로가 되고 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외부 시스템과의 연결은 확대됐지만, 이를 관리하는 보안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보안 수준이 가장 낮은 연결 지점 하나가 금융회사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결국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3일 임원회의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대형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보안 통제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 해킹을 막을 수는 없다.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묻기보다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했는지, 취약점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사고 이후의 제재보다 사고 이전의 예방에 무게를 둬야 한다. 형식적인 점검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보안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은 보안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CEO와 이사회가 보안 예산과 전문 인력 확충을 직접 챙기고, 외부 연결망에 대한 상시 점검과 접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상 징후 탐지와 위협 정보 공유체계도 고도화해야 한다. 보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에는 공동 관제 체계와 기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에서 신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다. 고객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돈뿐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금융 거래를 한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도 의미가 없다. 금융권은 이제 해킹을 피할 수 없는 외부 위협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내부의 보안 불감증을 돌아봐야 한다.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생존 조건이다. 이번 연쇄 해킹 사태가 금융권의 보안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

/ljnh@metroseoul.co.kr

테슬라·BYD, 판매 돌풍만큼 서비스도 책임져야



기자 수첩
이 승 혁
〈산업부〉

2021년 핀란드에서 테슬라를 고치는 대신 폭파한 차주가 등장했다. 보증이 끝난 모델S의 배터리 교체 견적에 불만을 품은 그는 폭파 전문 유튜브팀에 차량을 맡겼다. 배터리 등을 제거한 차는 다이너마이트 30㎏에 산산조각 났다. 구매의 만족이 수리 단계에서 뒤집힌 극단적인 사례다.

차를 살 때의 만족이 오래가려면 구매 이후의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 국내에서 빠르게 판매를 늘린 테슬라와 BYD도 새겨야 할 대목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통계를 합산하면 올해 1~10월 테슬라의 신규 등록은 9만8313대, BYD는 2만1731대다. 두 브랜드의 비중은 전체 수입 승용차 등록의 38.6%에 이른다. 이제는 판매 실적에 걸맞은 서비스 역량을 갖췄는지 돌아볼 때다.

BYD코리아 공식 목록에 오른 서비스센터는 21곳이지만 사고수리가 가능한 곳은 수도권 4곳과 부산 사상 등 5곳이다. 광주와 대구·대전 등의 거점에는 일반수리만 표시돼 있다. 테슬라는 공식 서비스센터 18곳과 경기 동탄·용인의 자체 사고수리센터를 운영한다. 별도의 공인 정비소도 활용한다. 고객에게 중요한 것은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수리를 받을 수 있느냐다.

업체들도 정비망을 늘리고 있다. BYD코리아는 지난달 7일 용인 서비스센터 개소를 알리며 연말까지 서비스센터를 26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늘어날 센터가 지금 수리해야 하는 고객의 불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정비망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 목표를 세우고 물량을 들여올 때 정비 수요도 계산했어야 한다. 판매부터 늘리고 서비스는 나중에 보완한다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준비 비용을 소비자의 기다림으로 대신하는 셈이다.

필요한 것은 간판보다 실제 수리 능력이다. 사고수리 거점의 지역 편중을 줄이고 정비사와 부품을 확보해야 한다. 구매 전에 가까운 센터에서 가능한 작업과 차량 이송 지원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딜러사나 협력업체에 작업을 맡겨도 최종적인 서비스 책임은 해당 브랜드에 있다.

자동차는 인도로 거래가 끝나는 상품이 아니다. 소비자는 수년간 탈 차와 함께 고장과 사고에 대응할 서비스도 산다. 수리할 준비 없이 무작정 판매만 늘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다음 판매 목표를 내놓을 때는 늘어난 차량을 어디서, 누가, 얼마나 빨리 고칠 것인지도 함께 답해야 한다.

/sh95@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6일 (음 9월 2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질병에 시달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세요. **60년생** 매사 동료와 함께 의논하세요. **72년생** 귀인이 찾아와 막힌 일이 풀립니다. **84년생** 노력 뒤에 얻은 재물이라 애지중지 합니다.

소 **49년생** 중요한 서류가 분실되니 그 손실이 큰 법입니다. **61년생** 자식이 속 썩이겠습니다. **73년생**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때 입니다. **85년생** 위태로운 하루 입니다. 자중함이 좋겠습니다.

호랑이 **50년생** 큰 일을 도모하기에 앞서 가정을 먼저 돌보세요. **62년생** 동쪽에 인연이 있습니다. **74년생** 서방과 북방은 흉하니 바라보지도 마세요. **86년생** 닭띠, 개띠와의 동업은 그 끝이 보입니다.

토끼 **51년생** 예술 계통의 종사자는 길합니다. **63년생** 해 뜨는 곳이 길한 방향이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75년생** 당신의 손에 맞는 반지는 따로 있습니다. **87년생**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세요.

용 **52년생** 명예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64년생** 허황된 헛된 꿈을 좇기보다는 내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76년생**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88년생** 노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세요.

뱀 **53년생** 다른이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65년생** 언행에 조심해야 합니다. **77년생** 자신의 재주를 과신하지 마세요. **89년생** 윗 사람과 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54년생**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66년생** 오늘의 고생이 내일의 영광을 부릅니다. **78년생** 내가 싫은 일은 남도 싫은 법입니다. **90년생** 모든 문제는 깊게 고민하고 해결하세요.

양 **55년생** 아랫사람에게 시키지 말고 직접 해결하세요. **67년생** 여행수가 보입니다. **79년생** 좋은 집을 얻을 기회니 부지런히 다녀보는 게 좋습니다. **91년생** 뜻하지 않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원숭이 **56년생**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8년생** 짭짤한 수입 등으로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80년생** 술자리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92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닭 **57년생** 밖으로 나가면 기분 좋은 소식이나 새로운 인연이 기다립니다. **69년생** 신중한 행동을 하면 복이 옵니다. **81년생** 금전거래를 주의하세요. **93년생** 항상 기다려보세요.

개 **58년생** 저녁에 잡는 약속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70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82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94년생**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돼지 **59년생** 모든 일이 복잡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71년생**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83년생**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95년생** 치성을 다해 빌도록 하세요.



김상회의 四季

안타까운 수저론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수저론이라는 말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어떤 환경의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인생이 규정된다는 게 수저론이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면 금수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면 흙수저라고 부른다. 집안 환경이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부모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은 물론이고 취업과 결혼 그리고 주거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하지만 수저론이 널리 퍼지고 그런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현상은 씁쓸하기만 하다. 인생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체념을 만들고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미리 선을 그어버리는 논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나는 흙수저라서 그 무엇도 하기 힘들고, 저 사람은 금수저니까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일이 젊은 세대에서 늘어나고 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실감할 때가 있다. 어떤 젊은이는 자기가 흙수저인데 사주가 좋다고 인생이 달라지느냐고 묻기도 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거나 부모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스스로 흙수저 인생이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수저론이 젊은이들 사이에 패배 의식을 심어주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힘마저 빼앗아버린다는 점이다. 인생을 시작할 때 차이가 있다는 것과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집안이 빈곤하면 살아가는 게 고단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남보다 뒤에서 출발한 사람이라고 항상 뒤에서만 달리지 않는 게 인생이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해 의사가 된 사람, 부모 도움은커녕 빚으로 사업을 시작해 큰 자산을 일군 사람도 있다. 자기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수저론에 낙담하지 않는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한 힘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6		5	
6					1	3	7	2
		1		3			8	
	4		7				9	
	7				3		1	
	1			8		5		
8	6	7	4					1
	5		6			7		

7		9	2					3
				5	1			
		1	8				2	
		4	1				5	
8		6				7		1
	5				7	4		
	2				8	1		
			7	4				
4					6	8		2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29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추재옥이 이끄는 '도멘 유제니'…한국인 '손맛' 담긴 부르고뉴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47



❶ 도멘 유제니 클로 부조 그랑 크뤼 2023.
❷도멘 유제니 그랑 에세조 그랑 크뤼 2023
❸도멘 유제니 에세조 그랑 크뤼 2023.
❹도멘 유제니 본 로마네 프리미에 크뤼 오 브륄레 2023.
❺도멘 유제니 본 로마네 끌로 유제니 2023.



추재옥 와인메이커

포도밭에 가보면 어떤 와인이 나올지 보인다고 한다. 와인메이커든 재배관리자든 들인 정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서다. 좋은 와인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건강한 포도나무와 살아있는 토양이니 말이다. 같은 재료를 써서 만든 음식도 사람의 정성과 손맛에 따라 달라지는데 포도 재배부터 양조까지 이어지는 와인이야말로 만드는 이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도멘 유제니를 잘 모르겠거든 추재옥이라는 사람을 보면 된다. 자신은 '농사 짓는 사람'이란 말처럼 아직도 가지치기에 포도 솎는 작업까지 직접 한다.

프랑스 부르고뉴 와이너리 도멘 유제니의 총책임자이자 와인메이커인 추재옥 이스테이트 매니저는 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포도밭에서 토양은 여자의 자궁에 비유할 정도로 중요해 유기농 농법을 비롯해 최대한 많은 미생물을 보존토록 한다"며 "와인은 포도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순수하고 섬세한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인 와이너리 총책임자. 여성 와인메이커. 부르고뉴 한국인. 어떤 조합으로도 쉽지 않았을 여정이다. 추 매니저는 한국인이다. 2008년 부르고뉴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보통 직장인이었다. 와인 수입사에서 일을 하다 좀 더 배워보자고 떠난 길이었다. 그때가 28살이었다.

문과 출신이 중학교 수준 화학책까지 붙들고 포도재배학과 양조학 학위를 따냈지만 고집있는 프랑스, 거기서도 더 콧대높은 부르고뉴에선 그저 '아시아 여자애'였다. 그 어렵다는 양조학 최고 과정인 디플로마까지 끝냈지만 써주는 와이너리는 없었다. 선택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포도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와인메이커도 아닌 그냥 포도밭 노동자로 인턴십 당시 인연이 있어 간 곳이 바로 도멘 유제니다.

아르테미스 그룹은 1993년 보르도 샤또 라뚜르로 시작해 2006년 부르고뉴 도멘 유제니, 2011년 론 샤또 그리예 등을 인수한 곳이다.

추 매니저는 샤또 그리예에서 먼저 총책임자를 지내다 도멘 유제니로 자리를 옮겨 2년차를 맞았다. 도멘 유제니는 전설적인 와인메이커로 이름을 날린 명가 '도멘 르네 엔젤'을 인수해 이름을 바꾼 곳이다.

추 매니저는 "한국 사람들처럼 몸에 좋다는 성분으로 포도나무 자체가 면역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화학 물질은 유기농 재배에서 허가된 것도 가능한 한 적게 쓰려고 하며, 이랑 사이에 보리 등 피복작물(cover crop)도 직접 심었다"고 설명했다.

아쉽지만 추 매니저의 와인을 맛보려면 아직 기다려야 한다. 그가 만든 첫 빈티지가 2025년인데 지금 시장에 풀린 빈티지는 2023년이다. 그래도 양조 철학은 같다.

'도멘 유제니 본 로마네 끌로 유제니'는 독점 소유 포도밭(모노폴)인 끌로 유제니에서 나온 빌라주 와인이다. 2019 빈티지는 균형감이 완벽하다는 평가만큼이나 바로 화사한 향이 코를 사로잡는다. 2023 빈티지는 폭염으로 고생했지만 줄기 사용 비중을 높였고, 화려함은 덜하지만 타닌과 구조감이 좋다.

'본 로마네 프리미에 크뤼 오 브륄레'는 프리미에 크뤼 가운데 최고라고 평가받는 곳이다. 서늘한 기후로 예전에는 포도를 완전히 익히기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온난화의 덕을 보고 있다. 가장 큰 매력은 쌉쌀하고 짭짤한 '돌 맛'이다.

사실 부르고뉴 피노누아는 섬세하고 여리여리해서 음식이 꼭 필요하진 않다. 그래도 와인메이커가 한국인이니 음식 페어링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는 "쉽게는 고기를 살짝 구워 된장이나 쌈이 아닌 소금에 찍어 같이 마시거나 파전, 잡채를 비롯해 너무 맵지 않은 안동찜닭도 어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코미디에 진심 담아, 함께 웃는 무대 만들 것" 라라랜드·헝거게임 돌비 사운드로 본다

인터뷰

정 성 화 배우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 공연
초연부터 지금까지 세번째 작업
살아있는 캐릭터 연기로 감정 전달
코미디의 본질 지키며 울림 줄 것



"연말 대작들이 대거 모여 있는 시기에 '미세스 다웃파이어'로 관객들과 만납니다. 더 많은 관객이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연습실에서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 정성화가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의 세 번째 시즌 개막을 앞두고 무대에 오르는 소감과 각오를 전했다. 2022년 초연과 2025년 재연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주인공 다니엘 역을 맡은 그는 누적 관객 18만 명, 관객 평점 9.8점이라는 대기록을 이끈 주역이다. 이번 공연은 황정민, 정성화, 정상훈 등 초연·재연의 흥행 주역들이 다시 뭉치고 새 캐스팅이 더해져 한층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혼 후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게 된 아빠 다니엘이 아이들 곁에 머물기 위해 유모 '미세스 다웃파이어'로 변장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원작의 틀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제작진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는 '논레플리카' 방식으로 제작됐다. 초연 때부터 캐릭터를 함께 구축해 온 정성화에게 이 작품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는 "초연 때부터 작업했기에 정이 많이 들었다"며 "(저 또한) 아빠라 그런지 다니엘의 마음이 더 가깝게 다가온다. 체력이 허락한다면 60세가 되어서도 이 역할을 하고 싶다"고 웃어 보였다.

이번 시즌 그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관객이 남편조차 속을 정도로 정교한 할머니 연기에 빠져들게 하는 '디테일'이다. 공연 초기 인물의 개성과 현실성을 더하기 위해 윤여정, 故 김수미 배우의 모습을 참고하는가 하면, 관객을 사로잡는 명장면인 '8초 퀵체인지'와 1막 마지막 록 넘버에서의 무대 위 헤어스타일 전환 등 고난도 기술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었다.

이처럼 유쾌하고 숨 가쁜 변신 속에서도 정성화가 놓치지 않는 원칙은 바로 '코미디의 본질'이다. 1994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틴틴파이브 활동 등을 거친 그에게 코미디는 독보적인 무기이자 훈장이지만, 결코 단순한 웃음 기술에 기대지 않는다.

정성화는 "코미디 타이밍은 역설적이게도 진지함에서 나온다. 인물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웃음도 정확하게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미디는 단순히 웃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관객이 인물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해야 코미디도 극적으로 전달됩니다. 공연 내내 웃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캐릭터가 살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코미디 철학은 '미세스 다웃파이어'가 단순한 가족 코미디를 넘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연을 마치고 관객의 박수를 들을 때 비로소 '하루를 잘 살았다'는 보람을 느낀다는 배우 정성화. 그는 오늘도 관객에게 진심 어린 웃음과 감동을 전하기 위해 연습실로 향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메가박스, 돌비시네마 라인업 공개

CGV, 애니메이션·공연 등 특별 콘텐츠 풍성

메가박스가 11월 돌비 시네마 상영작으로 '라라랜드', '헝거게임 50번째 추첨의 날', '헥스: 마녀왕국'을 선정했다. 로맨스부터 판타지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프리미엄 특별관에서 선보인다.

먼저 11일에는 개봉 10주년을 맞은 '라라랜드'가 재개봉한다.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관왕을 차지한 작품으로, 돌비 시네마에서는 18일부터 상영한다. 배우 지망생 미아와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의 사랑과 꿈을 그린 영화로, 돌비 비전의 색감과 돌비 애트모스의 입체적인 사운드로 작품의 음악과 영상미를 전달한다.

18일에는 '헝거게임' 시리즈 신작 '헝거게임 50번째 추첨의 날'이 개봉한다. 주인공 헤이미치 애버내시의 어린 시절을 배경으로 제50회 헝거게임에서 벌어지는 생존 경쟁을 그린다. 25일에는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장편 애니메이션 '헥스: 마녀왕국'이 관객을 만난다.

메가박스는 세 작품을 돌비 시네마와 돌비 비전+애트모스 특별관 등 총 14개 지점에서 상영한다. 관람객에게는 돌비 포스터를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지점별 증정 정보는 메가박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더 랍스터·원스 등 명작영화 재개봉

CGV가 11월 애니메이션과 명작 영화 재개봉작, 공연 실황 등 다양한 특별 콘텐츠를 선보인다.

애니메이션 라인업으로는 5일 '명탐정 코난: 30호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11일 '극장판 카드캡터 체리: 봉인된 카드', 14일 '극장판 마카엔로니: 기억탐험 대소동!'이 단독 개봉한다. 20일부터는 '원피스 필름 골드'를 재상영하며, 25일에는 '진격의 거인: 자유의 날개'를 4DX 포맷으로도 선보인다.

명작 영화 재개봉도 이어진다. 11일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더 랍스터', 18일 존 카니 감독의 음악영화 '원스'가 관객을 만난다.

공연 콘텐츠로는 11일 하이라이트의 데뷔 15주년 기념 공연 실황 '하이라이트: 라이츠 고 온, 어게인 인 시네마'를 재개봉하고, 18일 임영웅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2'와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단독 개봉한다. 22일 세븐틴 유닛 콘서트 생중계에 이어 29일에는 엔믹스의 월드투어 피날레 공연을 SCREENX LIVE로 선보인다. KBO 한국시리즈 생중계도 전국 CGV에서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의 러시아산 경유 수입 '좌초 위기'…유조선 2척 방향 틀어 /사진 뉴시스
▲EU·미, 우크라 전후 재건 협의…젤렌스키 "추가 지원 준비"
▲푸틴, APEC 앞두고 중-러 변경도시간 철로 복선화 법안 서명
▲APEC서 미중러 첫 정상회담 열릴까…셈법 엇갈려 "의제 동상이몽"
▲中왕이, 인근 동남아 5개국에 안보·무역 등 협력 강조
▲日의료기업, 홋카이도 내 의료기기 드론 수송 상용화 추진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29호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이커머스
연중 최대 쇼핑대전
AI로 차별화
L1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동물실험 대체기술
중국 시장 공략
L2



알록달록 꽃길에 예술이 톡톡… 문밖에 펼쳐진 동화 속 정원

아파트의 미학(美學)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은평구 대조동 2451가구 매머드급 단지
GTX·3호선 등 환승거점 연신내역 도보권
복합개발 추진… 교육·생활 인프라도 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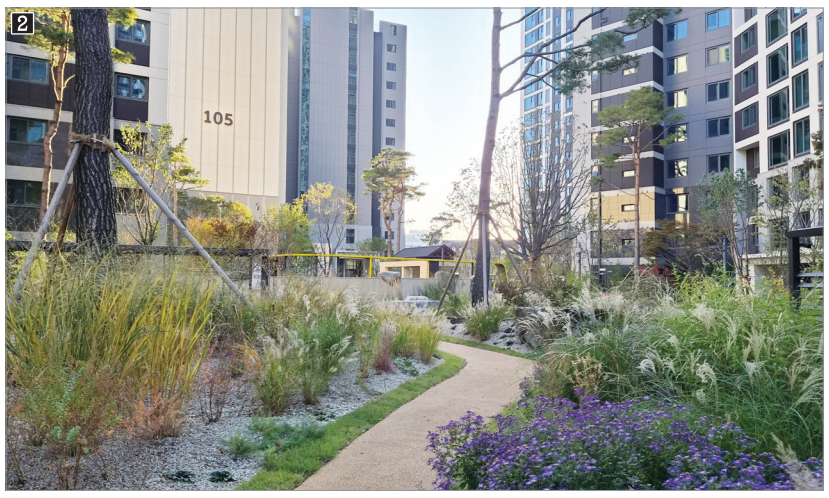
단지 내 곡선길 따라 아기자기한 식물 식재
식재된 나무와 북한산 산세 한 풍경으로
티하우스·수경시설 등 조화롭게 어우러져

플라밍고·키네틱 조형물 등 재밌는 볼거리
곳곳에 예술작품 같은 다채로운 쉼터 배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석가산을 둘러싼 정원과 2층 티하우스.







1 정원을 중심으로 양쪽에 솟은 석가산.
2 소나무 아래 보랏빛 꽃과 은빛 이삭이 어우러진 산책길.
3 플라밍고 조형물과 티하우스가 배치된 2단지 정원.
4 정원에 배치된 플라밍고 조형물. /성채리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역에서 나와 빌라가 이어진 길을 걷다 보면 새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한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다. 연신내역 GTX-A 개통에 이어 대규모 재개발 단지가 입주하면서 은평의 주거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현대건설이 대조1구역을 재개발한 이곳은 대조동 88·89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28개 동, 총 2451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다. 불광5구역과 갈현1구역 등 주변 정비사업에 앞서 입주민을 맞으며 일대 주거지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분양 당시에는 가격이 먼저 화제였다. 지난해 5월 전용 59㎡ 최고 분양가가 11억5060만원에 책정되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둔 지난달 9일 같은 면적대 입주권이 13억738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단지에서 도보권에 있는 연신내역은 지하철 3·6호선에 GTX-A까지 지나는 환승 거점이다. 지난 2024년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면서 연신내역에서 서울역까지 열차로 약 6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됐다. 3호선을 타면 종로 일대 업무지구, 6호선으로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공덕역 등 업무지구로도 이동할 수 있다.

지역 안에 일자리를 늘리려는 개발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옛 국립보건원 부지의 ‘서울창조타운’은 디지털미디어·영상 등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업무·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하는 사업이다. 수색·DMC역 일대에서도 철도 부지와 역세권을 활용한 복합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 여건은 대은초등학교가 단지에 인접해 있다는 점이 꼽힌다. 주변에는 예일여중·고와 동명여고 등이 있다.

NC백화점 불광점과 이마트 은평점, 대조전통시장과 연서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가깝다.

단지 입구에선 날개처럼 가로로 펼쳐진 문주가 입주민을 맞이한다. 짙은 갈색 바탕의 금빛 힐스테이트 로고를 중심으로 양옆에 출입구가 이어진다.

단지 내 산책길은 황토빛 곡선을 그린다. 길 가장자리를 좁게 두른 잔디 너머로 보랏빛 꽃이 무리 지어 폈다. 흰 자갈 위에는 알록달록한 풀들이 자리 잡았다.

식물의 색과 질감에서 계절의 변화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은빛 이삭과 옅은 분홍빛 꽃이 가을 분위기를 더한다.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풀들 위로는 소나무가 중심을 잡고 있다.

식재 공간을 나누는 반듯한 벽 위에는 돌을 얹어 볼거리를 만들었다. 돌이 벽면에서 녹아내리는 듯한 모습은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 속 시계를 떠올린다.

동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는 북한산은 정원의 배경이 된다. 단지 안의 식물과 담장 밖 산세가 한 풍경으로 이어진다.

산책길 곳곳에는 노란색이 작은 표지처럼 놓여 있다. 돌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정원에 밝고 경쾌한 색을 보탰다.

동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에는 라운지처럼 널찍한 야외 휴게공간도 마련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앉아 쉬거나 이웃과 이야기를 나눌 만한 자리다. 바람과 햇살이 드는 개방된 공간에 야간 조명을 더해, 해가 진 뒤에도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석가산이 둘러선 정원은 핵심 조경이다. 높낮이가 다른 회색 바위들이 양쪽에 솟아 있다. 발치에는 둥근 자갈을 넓게 깔고 평평한 디딤돌을 띄엄띄엄 놓아, 시선이 바위 위에서 발밑까지 이어진다. 조명에 반짝이는 티하우스와 수경시설이 어우러져 특별한 정원으로 들어서는 느낌을 준다.

티하우스는 모서리가 둥근 프레임 가장자리에 따뜻한 색의 조명을 둘렀다. 1층은 넓은 통유리 너머로 정원을 바라보도록 하고, 2층은 측면을 열어둔 테라스에 유리 난간을 설치했다.

티하우스 앞에는 길게 뻗은 수경시설이 놓여 있다. 주변의 돌과 자갈, 소나무가 함께 시야에 들어온다. 수직으로 솟은 석가산과 낮게 펼쳐진 수경 공간, 그 뒤의 2층 티하우스가 가득 정원을 채운다.

석가산 곁의 조형물은 크기가 다른 원형 구조물들이 연결된 키네틱 조각으로, 각 부분이 바람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전하도록 설계됐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조형물이 달라지는 모습까지 정원의 볼거리가 된다.

2단지 정원에서는 분홍색 플라밍고들이 시선을 붙잡는다. 가늘고 긴 다리까지 곡선이 이어져 생동감이 느껴진다. 목을 길게 세운 새도 있고, 고개를 낮춰 물을 마시는 듯한 새도 있다. 수공간과 어울리는 동물인 플라밍고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감상하도록 배치했다.

쉬는 자리에도 예술작품 같은 가구를 놓았다. 분홍색 원통형 의자와 가운데가 잘록하게 들어간 노란색 벤치가 대표적이다. 자리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면 야외 전시 한가운데서 쉬는 듯한 기분이 든다.

경로당 앞에는 작은 텃밭과 운동시설, 평상처럼 넓은 휴게공간이 함께 놓였다. 좁은 벤치보다 앉는 면을 넓게 펼쳐 여럿이 둘러앉거나 쉬어갈 만하다.



4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아시안컵 축구 연기 후폭풍…각국 사령탑 거취 ‘안갯속’
▲703홈런 전설 푸홀스, MLB 팀 지휘봉 잡나… 휴스턴 감독 면접 /사진 뉴시스

▲여자농구 신한은행, ‘우승 후보’ 우리은행 65-58 격파
▲北 태권도 단독 등재 신청, 2년 전인데…국가유산청 해명은?

▲교황 보러 100만명 서울 온다…천주교 WYD 본격 준비
▲최휘영 장관, 앤트로픽 국내 도서 무단 활용에 “현행법 한계”